東大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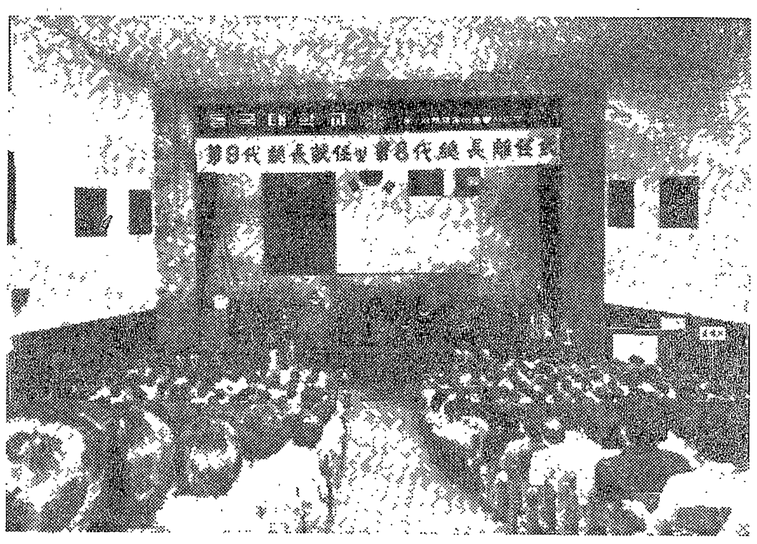
發行人 鄭在允 / 編輯人 鄭方又 / 印刷人 武榮 / 主幹 宋燕 / 編輯部長 李政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23) 8131~9 本社直通 (23) 8577

每週火曜日發行

第9代 鄭在覺總長 취임식 盛況

——1日, 新·舊總長 離·就任式 거행



◇第9代 鄭在覺박사 취임식겸 第8代 李瑄根박사 離任式이 지난 1일 中講堂에서 있었다.

東大다운 個性·特長발휘 育成 分校, 實驗大學문제 完結 時急

○…… 본교 제9대 總長 鄭在覺박사의 취임식겸 제8대 總長 李瑄根박사의 이임식이 지난 7월1일(土) 오전 11시 中……○

○……講堂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尹月下理事長, 宗親의 高僧大德스님과 本校 前總長인 趙明基(5代) 金東益(6代) 徐……○

○……候任(7代) 박사, 崔載九동창회장, 尹天柱서울대總長, 金相浹高大總長, 女勝鍾成大總長, 車洛燾淑大總長, 李恒寧弘大總長, 張……○

○……忠植敎大總長, 趙榮來祥明女師大總長, 中泰植啓明大 면에총장, 柳炯鍾서울시교육국, 須之部登三 주한 日本大使, V.V.Para……○

○……Bij De 주한 印度大使등 各界 귀빈과 학처장, 교직원·학생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자리……○

○……에서 新任 鄭總長은 就任辭를통해 『항상 발랄한 대학으로 영원히 발전하기위하여 體質改善 作業을 과감히 추진』하……○

○……고 『慶州 分校와 實驗大學 문제의 完結이 時急한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

三師依禮로 시작된 이날 이·취임식에서 尹月下이사장은 告辭를 통해, 세계불교 학술회의 개최·한글대장경 영인본 발간·정각원 개원등 李瑄根전총장의 업적에 찬사를 표하고, 鄭在覺신임총장이 『所信대로 大學운영을 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학의 운영권을 상징하는 「東國大學校校旗」를 이양받은 新任 鄭在覺총장은 취임사를통해 『권위있는 역사와 깊은 由緣을 간직한 東大의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움을 느낀다』며 『보나는 70여년의 전통을 계승, 건학이념에 입각한 무궁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鄭총장은 대학의 특성과 문제에 대해 언급, 『「東大다운 東大」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東大의 個性인 佛敎와 文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그 밖에도 독특한 特長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李瑄根전총장은 離任辭를통해 『재임기간동안 본인을 아끼고 성원해주신 동국인에게 감사드리며, 東國이 民族의 私學으로서 계속의 지성의 요람으로 더욱 무궁한 발전이있기를 충심으로기원한다』고말했다.

한편 崔載九 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신임 鄭總長이 所信대로 모교를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보내자고 말하고 『새로운 학풍진작으로 「常勝東國」의 맑은 앞날을 내다보며 힘찬 전진을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式典에서는 新·舊총장에게 재학생과 교직원대표가 화환을 증정했으며 이임한 李총장에게는 간간히 관에서 신임총장 환영회와 접임 총장환송회가있었다.

한편 이·취임식이 끝난 후 동창회 주최로 복지회관에서 신임총장 환영회와 이임한 李총장 환송회가있었다.

이때에 막중한 책임을 진 여러분은 새로운각오와 성실한 자세로 대학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신임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학처장급의 전면개편은 74년 前 李瑄根총장이 부임하여 일부개편한 이래 4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大幅的인 인사이동인데 그중 金翰周총무처장과 鄭允武學生處長은 留任되었다.

이번 인사에서 黃壽永대학원장은 박물관장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行政大學院長에는 閔丙天박사, 經營大學院長에는 金鍾遠박사가 임명되었고 교무처장에는 교양학부장이었던 李昌培박사가 기획실장에는 裵鍾根박사가 각기 기용되었다. 또한 佛敎大學에 李敏昌박사, 文理科大學長은 잠정적으로 李昌培新任敎務處長이 겸임, 법정대학장에 韓相範박사, 경상대학장에는 張源宗박사, 農林大學長에 朱宗桓박사, 사범대학장에 김성배박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교양학부장에는 申國柱, 2부부장에는 申國柱 前행정대학원장이 임명되었고, 洪庭植前佛大學長은 도서관장에 전보되었다.

또한 科學館長에 金直泰박사, 實驗農場長에 이해룡박사, 演習林管理所長에 金昌浩박사 (유임) 外國語敎育院長에 吳韻筆박사 (유임) 正覺院長에 李智冠박사 (유임) 佛敎文化연구소장겸 기숙사 사감에 金雲學박사, 體育館長에 白元俊교수, 出版部長에 金鎬鎭선생(유임) 전자계산소장 安恩明 교수 (유임) 學生생활硏究所長에 崔世和박사, 大學院 學監에 曺水祿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

이번 새로 임명된 學處長급과 기관장의 약력은 別項과 같다. (6면참조)

◇新任 學處長級 명단

大學院長	黃壽永 박사	
行政大學院長	閔丙天 〃	
經營大學院長	金鍾遠 〃	
佛敎大學長	李載昌 〃	
法政大學長	韓相範 〃	
經商大學長	張源宗 〃	
農林大學長	朱宗桓 〃	
工科大學長	金昌湜 〃	
師範大學長	金聖培 〃	
二部部長	申國柱 〃	
敎養學部長	金秉玉 〃	
敎務處長	李昌培 〃	
學生處長	鄭允武	(留)
總務處長	金翰周	(留)
企劃室長	裵鍾根	〃
圖書館長	洪庭植	〃
科學館長	金直泰	〃

學處長級 전면 人事移動 學生·總務處長 留任

◇金鍾遠經營大學院長 ◇閔丙天行政大學院長 ◇黃壽永大學院長

◇申國柱二部部長 ◇金聖培師大學長 ◇金昌湜工大學長 ◇朱宗桓農林大學長 ◇張源宗經商大學長 ◇韓相範法政大學長 ◇李載昌佛敎大學長

◇金直泰科學館長 ◇洪庭植圖書館長 ◇裵鍾根企劃室長 ◇金翰周總務處長 ◇鄭允武學生處長 ◇李昌培敎務處長 ◇金秉玉敎養學部長

鄭總長 就任辭 全文

尊敬하는 尹月下이사장 이하 理事여러분! 崔載九회장 이하 同窓여러분! 이 宣誓를 되새기는 이 마당에 서게 되니 새삼 그 重責感에 눌리고 있는 自身을 發見합니다.

아시다시피 東國大學校는 바로 며칠전 72周年의 年輪을 기록했읍니다. 이것은 本校가 우리民族의 손으로 세워진 가장 高等敎育機關의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역사가 선진西洋 各國대학의 수백년 비한다면 同日에 論할바가 못됩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類例없이 가혹했던 興民族의 탄압下에서 쌓아올린 것이라면 그 風霜속에서 자라난 堅忍不拔의 精神的연령에 있어서는 반드시 스스로 卑下할 필요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民族의 宗敎라고도 할수있는 佛敎의 宗國에서 建立한 學校로서는 國內에서는 물론 世界에서도 稀貴한存在임이 儼然한 事實입니다. 이렇게 권위있는 歷史와 깊은 由緣을 간직한 이學校의 傳統을 이어받아 더욱 發展시킨다는 作業이 반드시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은 자연히 權威가 定立되고 그렇게 로 말미암아 學問의 硏究와 敎育目標달성을 위하여 全力을 다하여 선 단 유리한 高地에 설수있는 長點을 가지는 것이지만 일면에는 바탕의 하지 못한 因襲의 中毒作用으로 말미암아 進取的인 기상이 약해지고 老化現象을 일으킬 언제나 緊張이 要請되는 현상인 것도 또한 否認할수 없는 것입니다. 大學經營의 A·B·C인 훌륭한 施設, 우수한 敎授, 良質의 學生의 확보가 어느대학을 막론하고 不可缺의 共通기본요건이며 이 기본요건의 達成을 위하여 각 대학이 노력을 傾注하고 있는것도 이 또한 현실입니다. 東國大學校도 이미 歷代經營者와 東大人全體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相當한 施設과 高名한 敎授陣과 수수한 學生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은 來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日就月將하는 새로운 文化의 吸收가創造의 興味를 일고 힘차게 과거의 名譽과 傳統에만 安住하려는 傾向이 보일때 그 大學의 發展은 停滯되고 마침내 存在理由를 상실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大學의 傳統을 영원히 凝凍하게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新鮮한 營養素를 흡수하고 病的인 部分을 제거하는 體質改善作業이 決斷性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밖에도 發掘되어야할 獨特한 長點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個性들을 育成 또는 發見하는 것, 다시 말하면 東國大學校를 大學校답게 키우는 작업이 또한 東國人으로서는 누구나 看過해서는 안될 本質的인 과제에 속합니다. 이상 열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歷代의 財團理事님, 總學長, 敎授님 그리고 同門 여러분들의 勞苦의 結晶을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성과들을 디디고서서도 來日에의 기대를 성각할때 本人은 스스로의 역부족을痛感하는 바입니다. 특히 前任 李瑄根총장의 精力的인 布陣에는 그가남겨준 廢校分校와 실험대학문제의 完結이 時急한 당면과제임을 여러분은 잘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남기고 가는 이러한 문제들과의 對決이 總長이라는 職責者 한사람만의 能力으로는 成功될 수 없는 것인 이상 本人은 이자리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과 협조 없는 協助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東國大學校의 崇高한 목표의 달성과 無窮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편달이 不可缺의 것임을 거듭 强調하면서 부탁드립니다.

1978年7월1일

東國大學校 總長 鄭在覺

大學의 傳統을 永遠히 발랄하게 維持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新鮮한 營養素를 吸收하고 病的인 部分을 除去하는 體質改善作業이 決斷性있게 進行되어야 합니다.

門여러분! 敎授職員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學生제군!

本人은 엊그제 第9代 總長으로서의 職責을 수여받고 東國大學校의 校則을 성실히 遵守하고 아울러 東國大學校의 빛나는 歷史를 繼承발전시키는데 全力을 기울일 것을 스스로 다짐 했읍니다. 그리나 막상 여러분 앞에서 宣誓하는 이 마당에서는 다시 한번 그 責任感에 눌리고 있는 自身을 發見합니다.

아시다시피 東國大學校는 바로 며칠전 72周年의 年輪을 기록했읍니다. 이것은 本校가 우리民族의 손으로 세워진 가장 오래인 高等敎育機關의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역사가 선진西洋 各國대학의 수백년 비한다면 同日에 論할바가 못됩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類例없이 가혹했던 興民族의 탄압下에서 쌓아올린 것이라면 그 風霜속에서 자라난 堅忍不拔의 精神的연령에 있어서는 반드시 스스로 卑下할 필요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民族의 宗敎라고도 할수있는 佛敎의 宗國에서 建立한 學校로서는 國內에서는 물론 世界에서도 稀貴한存在임이 儼然한 事實입니다. 이렇게 권위있는 歷史와 깊은 由緣을 간직한 이學校의 傳統을 이어받아 더욱 發展시킨다는 作業이 반드시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은 자연히 權威가 定立되고 그렇으로 말미암아 學問의 硏究와 敎育目標달성을 위하여 全力을 다하여 선 단 유리한 高地에 설수있는 長點을 가지는 것이지만 일면에는 바탕의 하지 못한 因襲의 中毒作用으로 말미암아 進取的인 기상이 약해지고 老化現象을 일으킬 것을 스스로 다짐 했읍니다.

東國大學校의 영광의 傳統에 영원의 生命을 불어넣기위한 주의깊은 작업의 必要가 大學經營의 條件의에 본인이 外面적인 問題에 속합니다. 大學의 傳統에 있는 또한 각기 개성이 있읍니다. 歷史가 오래인 학교일수록 그 個性은 뚜렷합니다. 個人도 그자신의 個性을 통해서 社會에 공헌하며 民族과 국가도 각자의 個性을 발휘함으로써 세계문화에 가장 잘 이바지할 수 있듯이 大學도 자신의 個性을 가장 잘 발전시킬때 民族과 국가 나아가서는 世界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生産的 意義를 갖게 되는 것이 歷史의 證明하는 바입니다. 들이켜 보면 東國大學校는 佛敎精神을 建學의 바탕으로 삼는 것이 부엇보다도 뚜렷한 個性임니다. 新羅 高麗時代에는 國敎로서 전성시대를 가졌던 佛敎가 朝鮮王朝時代에는 儒敎의 박해를 받고 最近에 들어와서는 基督敎의 도전을 받아서 自體整備의 陣痛을 겪고 있는 것이 現狀입니다 마는 東國大學校는 이러한 自身의 建學理念을 굳건히 守護發展시켜야할 重大한 時代的 사명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東國大學校는 또한 歷史的으로 유맥한 文學人을 다수 배출시키고 있는것도 自他가 共認하는 個性的 현상입니다.

그밖에도 發掘되어야할 獨特한 長點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個性들을 育成 또는 發見하는 것, 다시 말하면 東國大學校를 大學校답게 키우는 작업이 또한 東國人으로서는 누구나 看過해서는 안될 本質的인 과제에 속합니다. 이상 열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歷代의 財團理事님, 總學長, 敎授님 그리고 同門 여러분들의 勞苦의 結晶을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성과들을 디디고서서도 來日에의 기대를 성각할 때 本人은 스스로의 역부족을痛感하는 바입니다. 특히 前任 李瑄根총장의 精力的인 布陣에는 그가남겨준 廢校分校와 실험대학문제의 完結이 時急한 당면과제임을 여러분은 잘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남기고 가는 이러한 문제들과의 對決이 總長이라는 職責者 한사람만의 能力으로는 成功될 수 없는 것인 이상 本人은 이자리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과 협조 없는 協助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東國大學校의 崇高한 목표의 달성과 無窮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편달이 不可缺의 것임을 거듭 强調하면서 부탁드립니다.

1978年7월1일

東國大學校 總長 鄭在覺

鄭總長 就任辭 全文

鄭總長은 東大를 東大답게 키우는 것이 就任辭에서 강조했다 東大人의 本質的 課題라고

大學人事

▲秘書室長 崔載成 ▲秘書室勤務 洪

一括辭表提出 3日 前任學處長

지난 3일 前任學處長 一同은 신임 鄭總長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했는데, 그중 敎務行政의 重要性에 비추어 후임인사를 단행하기전까지 교무처장과 二部長은 閔丙天기획실장을 4일 兼務發令한 바 있다.

본교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의 여군단 입소교육이지난 25日부터 28日까지 여학생 간부및 서어클대표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陸軍女軍團에서 실시되고있다.

女學生 入所敎育 25~28日, 女軍團서

錢昌源博士 電算院長 留任

東國學院 尹月下이사장은 지난24일 이사장실에서 錢昌源전산원장을 本校부설 전자계산원장에 임명했다. 전자계산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던 錢昌源박사는 경상대학장직이 任期滿了되고 電算院長職에 유임된 것이다.

錢昌源전산원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23年 경북生 ▲57年 本校 경제과卒 ▲59年 서울대대학원 경제과卒 ▲74年 本校경제학박사학위취득 ▲단대, 경희대 강사 ▲63年~本校교수 ▲72年~78年 경상대학장역임 ▲本校부설 電子계산원장 ▲現 ▲23年 경북生 ▲57年 本校 경제과卒 ▲59年 서울대대학원 경제과卒 ▲74年 本校경제학박사학위취득 ▲단대, 경희대 강사 ▲63年~本校교수 ▲72年~78年 경상대학장역임 ▲本校부설 電子계산원장 ▲現

時事英語硏究 8월호 값 800원

◀ 이달의 名演說 ▶
President Carter's speech
No. U. S. Pullback from Defense Duty
지미 카아터 美大統領 演說
(※「時事英語카셋트」에 肉声녹음수록)

SPECIAL: KOREA '78
■ Already On the Way to Industrial Sophistication
工業化의 大路에 들어선 韓国経済 …… Alan Freeman
■ Despite Withdrawal, U.S. Commitment Is Solid
韓半島 세력균형과 韓国経済의 展望 …… Peter Weintraub
□ The Unpublished Letters of Boris Pasternak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未発表書翰 …… Boris Pasternak
□ Looking Back On a Lost Opportunity
美国의 越南抛棄는 歷史的 背任인가? …… Colin S. G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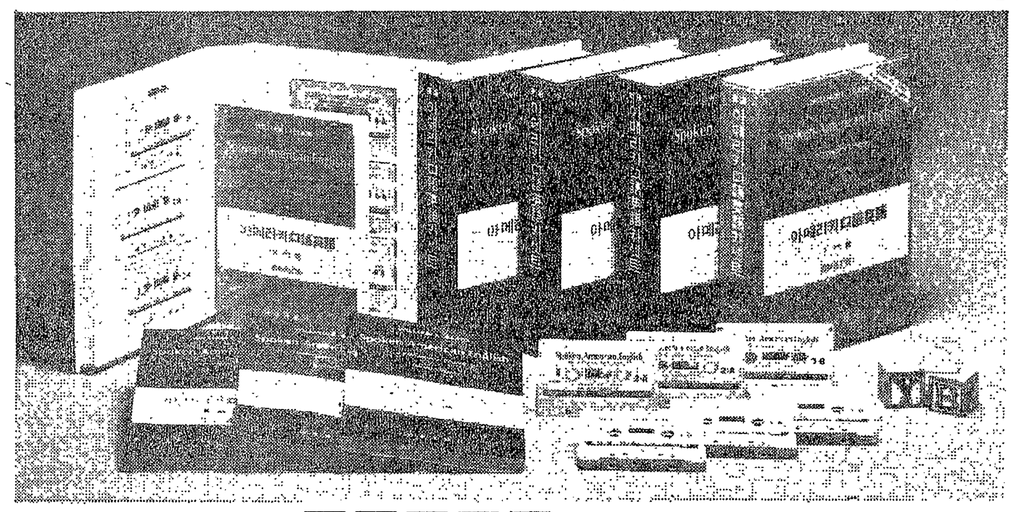
映画 "STAR WARS"
英語会話 Welcome to English (제1회)
考試英語 考試英語 予想問題·오제운
就職英語 韓国産業銀行
Word Power 特講 …… 丁喜鎭
MEN & IDEAS Chiang Ching-kuo論 …梁璨圭
英作敎室 就職英作文講座……金用璋
佛語誌上講座 (제20회)·프랑스文化館

英語世界 8월호 값 700원
主要記事
◆ Here's a Fresh Look At Far-Out Fuels (代替에너지 개발)
◆ How Well Do You Use Your Imagination?
◆ Famous Anecdotes (名司會者를 위한 일화들)
◆ Surviving the First Date (첫 데이트에 成功하는 비결)
特報
▶ Terrorism (反文明的 테러리즘은 근절돼야 한다)
▶ Terror Gangs (테러리스트들의 면모)
▶ "Most Barbarous Assassins"

新連載 ▶作家와의 對話 (Alex Haley) ▷英譯古典 (孟子) ▶映画街 散策 (Diane Keaton story)
절찬리에 Conquering Fear 결심부터 하라. 첫 인상은 인생을 좌우한다.
쉬었다 팝송/스포츠/해외문화/사색과 명상/신화/민속문학/英詩/단편/영어실력 향상 강좌
映画画詞 메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5의3 時事英語社 注文 電話: 서울 (269) 6624~5 부산 (43) 3007

New Cassette Course (24 Tapes)
新開発
Spoken American English 全4卷
著者 William L. Clark와의 正式契約에 의거 時事英語社가 独占版権을 가진 국내 유일의 合法版 文公部許可 308
카셋트 내용이 완전히 새로와 졌읍니다.
1. 카셋트 24개의 新版 2. 教材全體을 完全録音 3. 時事英語社만이 가진 100% 새 카셋트
新版 Spoken American English 카셋트의 構成 (入門篇) (初級篇) (中級篇) (高級篇) 全秩 Text 4권 카셋트 24개 값 60,000원



English is a tool of success. 時事英語社 配達注文 (269) 8823 (266) 6795 (75) 5064

今週一言

見痴往來,
圖塹受苦,
欲覃渡岸,
不好他語,
唯滅不起,
是謂梵志.

어리석은 사람 욕심에 날뛰다 함정에 빠져 고통하는 것 보고, 오직 한 마음, 저쪽 언덕을 향해 의심도 없고 유혹됨 없이, 모든 집착을 떠나 편안한 사람—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한다.

<法句經>

보리수

福田

남미 브라질로 이주한 피와 땀을 그땅위에 수 없이 쏟아넣어도 보람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박토를 손 개간한 농사꾼이 있써야만 뿌리면 열매가 달 깊이 박힌 나무뿌리 스럽게 맺지 못한다.

를 찍어내고, 움직이지않는 바위들도 부숴뜨리고 자갈들을 하염없이 줍고 주어 몇마지기 농토를마 련하는 농부가 간혹 있다. 그 조그만 논빼미위에 되비탈 넓고 또 넓어 비옥한 땅이 되어 달라는 발원을 함께 심은 농부가있다. 조만간 땅은 기름지고 심은 낟알은 소담스럽게 영글것이다.

스스로 복이 성장하는 것이다. 물질이 아니다. 노력과 성실은 항상 그일을 위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곡물류 대표가 화환을 증정했으며 이임한 李총장에게는 간간히 관에서 신임총장 환영회와 접임 총장환송회가있었다.

한편 이·취임식이 끝난 후 동창회 주최로 복지회관에서 신임총장 환영회와 이임한 李총장 환송회가있었다.

이때에 막중한 책임을 진 여러분은 새로운각오와 성실한 자세로 대학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신임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학처장급의 전면개편은 74년 前 李瑄根총장이 부임하여 일부개편한 이래 4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大幅的인 인사이동인데 그중 金翰周총무처장과 鄭允武學生處長은 留任되었다.

이번 인사에서 黃壽永대학원장은 박물관장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行政大學院長에는 閔丙天박사, 經營大學院長에는 金鍾遠박사가 임명되었고 교무처장에는 교양학부장이었던 李昌培박사가 기획실장에는 裵鍾根박사가 각기 기용되었다. 또한 佛敎大學에 李敏昌박사, 文理科大學長은 잠정적으로 李昌培新任敎務處長이 겸임, 법정대학장에 韓相範박사, 경상대학장에는 張源宗박사, 農林大學長에 朱宗桓박사, 사범대학장에 김성배박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교양학부장에는 申國柱, 2부부장에는 申國柱 前행정대학원장이 임명되었고, 洪庭植前佛大學長은 도서관장에 전보되었다.

또한 科學館長에 金直泰박사, 實驗農場長에 이해룡박사, 演習林管理所長에 金昌浩박사 (유임) 外國語敎育院長에 吳韻筆박사 (유임) 正覺院長에 李智冠박사 (유임) 佛敎文化연구소장겸 기숙사 사감에 金雲學박사, 體育館長에 白元俊교수, 出版部長에 金鎬鎭선생(유임) 전자계산소장 安恩明 교수 (유임) 學生생활硏究所長에 崔世和박사, 大學院 學監에 曺水祿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

이번 새로 임명된 學處長급과 기관장의 약력은 別項과 같다. (6면참조)

福田

○ ○

농부가 간혹 있다. 우리들은 북을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파악하려고한다. 그러나 복이란 그렇게 난해한 의미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복은 공덕이란 異名을 갖고있다. 공덕은 어떤일에 주어진 노력이오 성실인것이다. 노력과 성실은 항상 그일을 위하여 관계 없이 쏟아넣어도 보람은 없는 것이다. 수천 수만 에이커의 농장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오래 전 수천 수만 에이커의 농장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곡물류 대표가 화환을 증정했으며 이임한 李총장에게는 간간히 관에서 신임총장 환영회와 접임 총장환송회가있었다.

한편 이·취임식이 끝난 후 동창회 주최로 복지회관에서 신임총장 환영회와 이임한 李총장 환송회가있었다.

이때에 막중한 책임을 진 여러분은 새로운각오와 성실한 자세로 대학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신임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학처장급의 전면개편은 74년 前 李瑄根총장이 부임하여 일부개편한 이래 4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大幅的인 인사이동인데 그중 金翰周총무처장과 鄭允武學生處長은 留任되었다.

이번 인사에서 黃壽永대학원장은 박물관장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行政大學院長에는 閔丙天박사, 經營大學院長에는 金鍾遠박사가 임명되었고 교무처장에는 교양학부장이었던 李昌培박사가 기획실장에는 裵鍾根박사가 각기 기용되었다. 또한 佛敎大學에 李敏昌박사, 文理科大學長은 잠정적으로 李昌培新任敎務處長이 겸임, 법정대학장에 韓相範박사, 경상대학장에는 張源宗박사, 農林大學長에 朱宗桓박사, 사범대학장에 김성배박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교양학부장에는 申國柱, 2부부장에는 申國柱 前행정대학원장이 임명되었고, 洪庭植前佛大學長은 도서관장에 전보되었다.

또한 科學館長에 金直泰박사, 實驗農場長에 이해룡박사, 演習林管理所長에 金昌浩박사 (유임) 外國語敎育院長에 吳韻筆박사 (유임) 正覺院長에 李智冠박사 (유임) 佛敎文化연구소장겸 기숙사 사감에 金雲學박사, 體育館長에 白元俊교수, 出版部長에 金鎬鎭선생(유임) 전자계산소장 安恩明 교수 (유임) 學生생활硏究所長에 崔世和박사, 大學院 學監에 曺水祿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

이번 새로 임명된 學處長급과 기관장의 약력은 別項과 같다. (6면참조)

睦禎培

○ ○

남미 브라질로 이주한 피와 땀을 그땅위에 수 없이 쏟아넣어도 보람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박토를 손 개간한 농사꾼이 있써야만 뿌리면 열매가 달 깊이 박힌 나무뿌리 스럽게 맺지 못한다.

를 찍어내고, 움직이지않는 바위들도 부숴뜨리고 자갈들을 하염없이 줍고 주어 몇마지기 농토를마 련하는 농부가 간혹 있다. 그 조그만 논빼미위에 되비탈 넓고 또 넓어 비옥한 땅이 되어 달라는 발원을 함께 심은 농부가있다. 조만간 땅은 기름지고 심은 낟알은 소담스럽게 영글것이다.

스스로 복이 성장하는 것이다. 물질이 아니다. 노력과 성실은 항상 그일을 위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곡물류 대표가 화환을 증정했으며 이임한 李총장에게는 간간히 관에서 신임총장 환영회와 접임 총장환송회가있었다.

한편 이·취임식이 끝난 후 동창회 주최로 복지회관에서 신임총장 환영회와 이임한 李총장 환송회가있었다.

이때에 막중한 책임을 진 여러분은 새로운각오와 성실한 자세로 대학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신임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학처장급의 전면개편은 74년 前 李瑄根총장이 부임하여 일부개편한 이래 4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大幅的인 인사이동인데 그중 金翰周총무처장과 鄭允武學生處長은 留任되었다.

이번 인사에서 黃壽永대학원장은 박물관장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行政大學院長에는 閔丙天박사, 經營大學院長에는 金鍾遠박사가 임명되었고 교무처장에는 교양학부장이었던 李昌培박사가 기획실장에는 裵鍾根박사가 각기 기용되었다. 또한 佛敎大學에 李敏昌박사, 文理科大學長은 잠정적으로 李昌培新任敎務處長이 겸임, 법정대학장에 韓相範박사, 경상대학장에는 張源宗박사, 農林大學長에 朱宗桓박사, 사범대학장에 김성배박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교양학부장에는 申國柱, 2부부장에는 申國柱 前행정대학원장이 임명되었고, 洪庭植前佛大學長은 도서관장에 전보되었다.

또한 科學館長에 金直泰박사, 實驗農場長에 이해룡박사, 演習林管理所長에 金昌浩박사 (유임) 外國語敎育院長에 吳韻筆박사 (유임) 正覺院長에 李智冠박사 (유임) 佛敎文化연구소장겸 기숙사 사감에 金雲學박사, 體育館長에 白元俊교수, 出版部長에 金鎬鎭선생(유임) 전자계산소장 安恩明 교수 (유임) 學生생활硏究所長에 崔世和박사, 大學院 學監에 曺水祿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

이번 새로 임명된 學處長급과 기관장의 약력은 別項과 같다. (6면참조)

大學의 內實化

新任總長을 맞이하여

社說

學界와 一線에서 을 남기고 으로 本大學 에 就任以來 力과 大學의 面目 李瑄根博士의 후임으로 이 번에 우리는 鄭在覺博士를 제9대총장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新舊總長의 交替期가 되면 校內外에는 여러가지 雜音이 일어나고 緊張된 表情이 없지않은 것이 우리나라 大學, 특히 私學에서 흔히 찾아 볼수 있는 일면이다. 그것은 아직 우리나라 스스로의 敎育法에 의한 大學經營의 年輪이 짧아 그 機構나 運營方式 그리고 設備가 未洽한 點이 많은 社會에서는 대학 경영의 最高責任者인 總長의 經綸과 能力이 그 대학의 方向과 運命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 大學街의 상식같이 되어있던 大學總長選出의 이와같은 風土에서 본다면 이번의 本大學 新任總長의 選出이 學校法人 東國學院理事會에서 큰 雜音없이 조용한 가운데 進行되었다는 것은 큰 多幸이 아닐수 없다.

特히 第九代總長으로 就任한 鄭在覺博士가 브라운管이나 月刊紙같은 것을 通한 世俗的인 意味에서의 그 이른바 「著名人士」가 아니고 平生을 大學의 講壇과 敎育行政에서만 敎授職하신 「私立大學」의 敎授出身이라는 點에서 먼저 親密感을 느낀다.

여기서 新任總長의 經歷에 「私立大學」이라는 점에 큰 關心을 가지게 되는 것은 現下의 우리나라 大學敎育에서 私學은 國家의 財政補助없이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서 얻는 果實과 學父兄의 負擔만으로 運營되는데서의 私學이 지닌 體質을 잘 알고, 本大學과 같은 私學運營에 크게 違和感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믿는 까닭이다.

이와같이 第九代總長으로 鄭在覺博士를 모시게 된것은 그분이 지닌 社會的 影響을 利用하여 大學運營의 便宜를 얻으려는 淺薄한 利害打算이나 또 學校法人의 構成員과 두터운 親分關係에 얽힌 것이 아니라 講壇에서 또는 私學의 行政一線에서의 功績과 淸廉한 人格에 全幅的인 信賴와 期待를 걸었던 學校法人의 賢明한 人寄인만큼 東國人이라면 누구나 異議없이 찬성할 것을 믿어 疑心치 않는다. 一般의 期待가 크면 클수록 그 期待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맡게 되는 精神的인 壓迫感같은 것이 더 加重되는 것이다. 全東國人의 뜨거운 拍手를 받으며 本大學의 總長職에 就任한 鄭在覺박사도 부푼 東國人의 期待를 衰現하는 박수에 報答하려는 많은 大學行政의 숨기는데 남모르는 心勞가있을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未來의 本大學人이 바라는 바를 本報를 통하여 新任總長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 첫째는 建學精神의 具顯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과제이다. 本大學 學則 제1조에도 明示되어 있는바 本大學의 建學精神은 佛敎의 深奧한 眞理를 理解하는 知識人의 養成에 있다.

佛敎는 그것이 비록 外國에서 開敎되었으나 우리나라에 傳來이후 千六百年間에 걸쳐 그 無限한 慈悲力의 倫理德目은 우리 국민에게 깊이 尊嚴性과 平和追究가 바탕이되는 「弘益人間」의 國家建設을 理想으로 하게 되었다. 또 그 슬기로운 知識追究는 豐富한 情緖를 우리에게 심어 世界에 자랑할수 있는 佛敎藝術로 우리의 文化史를 裝飾하였고 깊은 哲學을 論證하는 그 偉大한 業績은 우리의 國土를 外侵으로부터 守護하는데 눈부신 活躍을하였던 훌륭한 우리의 傳統文化인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生産위주, 특히 大企業에의한 大量生産을 國家政策의 第一義로 하는 高度成長의 産業經濟政策이 持續되는 社會에서는 흔히 傳統文化의 前進을 위한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斷定하고 輕視하는 風潮가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도성장의 그늘에 도사리고 있는 機械萬能에의한 人間疏外 人間地位의 低下, 價値觀의 混亂등 極히 어두운 면도 認識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인간不在의 이 산업사회에서 우리에게 삶의 勇氣와 智慧를 주고 日日을 위한 活力素로서의 傳統文化가 再認識될 수 있다면 本大學의 建學理念과 그 具顯은 결코 歐美산업경제의 발전을 모델로 하여 돕음하는 이른바 近代化의 沮害要因으로 볼것이 아니라 오히려 次元높은 前進의 促進要素로 轉換시킬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한다.

다음으로 新任總長에게 期待를 거는 것은 오랜 校史의 年輪을 거듭하는 過程에 쌓인 積弊의 果敢한 淸算과 새傳統定立의 기틀을마련하여 달라는 것이다.

본교가 國內大學으로서는 開校72年이라는 屈指의 傳統을 가지고있는 東國人의 모두가 자랑삼고 있다. 그러나 傳統은 時間의 經過에 따라 새로운 時代에 不適한 요소가 생기며 그때마다 前進에 沮害되는 요소를 淸算하고 새로운 요소를 받아 自己體質에 알맞도록 再生産하지 않으면 價値가 없는 것이다.

本大學에는 大學의 內實化를 위한 前進에 不必要한 요소가 적지 않다. 예컨대 본교에서의 寬容의 美德은 本大學의 人寄行政面에서 지적 육되어 그 사람의 能力보다 너무나 人情的인 경향을 그대로 墨守하고 있다.

有名한 어떤 社會科學者가 前近代社會와 近代社會의 區分은 人情的이냐 沒人情的이냐에 있다면 가장 尖端을 걸어야 하는 大學에서 前近代的인 遲營을 固守하고 있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國內에서 가장 窘迫이 큰 電子計算機를 保有하고 있는 本大學이 他大學에서 이미 實施하고있는 學籍簿등의 機械化를 企圖조차 하지 않은것이 萬一 學內 部에서 떠돌다는 것이 그 理由의 一部가 된다면 本大學의 將來를 위하여 큰 不幸일 것이다.

이밖에도 短見으로 지켜 내려온 秀組學科에 대한 果敢한 經營方案의 樹立과 建學 理念의 地方擴散을 위하여 發想된 分校設置問題등 本大學의 앞날에 解決해야 할 많은 課題를 冷靜한 批判眼과 任務感에서의 情熱로서 차분차분하게 處理하여 즐겁게 나갈 것이다.

永遠한 生命體로 機能하게

▲司會=大學社會는 敎授·學生·施設이 기본요건이 되며, 이 3者가 만족스럽게 확보되었을 때 大學은 영원한 生命體로서 기능하게 되리라고 말하려서 大學의 문제를 말하려 할 때마다, 교수진은 어떻한가, 둘째 良質의학生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가, 셋째 大學施設은 어떠하며 그것은 분명히 아카데미즘의 특성으로 미루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쾌하지 못한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대학행정이 가능적인 면에서 뿌로크러시가돼서 교직원이 그 소임만 다하면 신분보장 한 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 교수를 학보하고 육성하는데도 언제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蘇鍾根=大學의 敎育的 行政職이 교체돼 이 두렷하게 되면 學問的전통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本校를 포함한 우리나라 大學들은 역사는 깊어도 그 전통성이 희박합니다. 敎授의 원천적인 권위는 敎授와 교육과정의 작성인데, 카리큘럼조차도 學科敎授가 소외된 가운데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大學은 行政的 효율화보다도 敎育的효율화가 기본이 돼야합니다. 大學의 行政 체제를 總長 중심제라 한다면, 그 중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核은 학과라는 사실이 명확히인식되어서 학 담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말은 학담위 中心으로 교수의 敎育權과 敎育課程權이 중요시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翌박사 의견에찬성합니다. 그러나 科의 敎授陣이 강화돼야합니다. 여기서 우수한 교수의 확보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과에 소속된 敎授自體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자가 그러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중요하냐하는것은 그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원활화되기위해서는 디파트먼트 중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즉 것은 새總長의 지도 이념에 귀기울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자가 그러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중요냐하는것은 그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원활화되기위해서는 디파트먼트 중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즉 敎授自體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자가 그러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중요냐하는것은 그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沈載厚=大學의 조직구조는 두가지로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성원 개개인의 人間이 이루는 핵요소 보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과에 소속된 敎授自體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자가 그러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중요냐하는것은 그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원활화되기위해서는 디파트먼트 중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즉 敎授自體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자가 그러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중요냐하는것은 그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金鎔貞=그러나 公採는 신규만이 정된느낌, 在職中인 교수진도 문제가됩니다. 이들 교수의 자질이나 硏究風土 向上을 위해서 海外파견이나 학술세미나 등의 활발한 활동을 권장하는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李昌培=결국 이런 도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總長의영 이나 補職敎授들이 도도하게 흐르는 매너리즘에 함몰돼서는 안됩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적 반성이 수시로 가해져야 합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대학의 기구나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야 며, 합신한 아이디어를 학교행정에 반영하고, 그리고 敎職員이 소신껏 일할 수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沈載厚=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韓國의 私學도 이제는 전문화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蘇鍾根=객관적으로 大學 전체에 대한 소위 개혁의 意志를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30年 전의 학위 생사회분위기와 오늘의 그것은 많이 바뀌었다는 데도 타당한 이유가 있읍니다. 一次학습인 學究的 종도속에서만 교육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二次 學習場인 유형에 편승한 이익적인 大學風土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金鎔貞=大學의 사회적인 評價基準을 분석해 보면, 이 모든 해답은 분명해지리라고 봅니다. 추상적으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대학의 학생자질과 교수의 자질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눈총이 아니라 싸구려 용어라도 보내서 부럽기만 합니다. 나 역시 그런 황금시대가 있였으니 말입니다.

산과 바다로 내닫는 즐거움, 거기에 사람도 분명 한계가 있는 법, 그래서 옛 지 않았읍니까. 옳거니 「過猶不及」이죠.

사실 방학은 추억의 옹달샘입니다. 느슨해진 나사 처럼 떠고 놀고, 놀다지는 즐거움에 구리 기둥이 썩는 것도 모른 나의 미련스런 과거를 하염없이 떠듭다가 문득 이 편지를 씁니다.

물론 바캉스는 말리진 않습니다. 말린다고 물러설 흐름이 것이냐구요. 뛰진 의국어를 하란다고 순종할 순동이는 이미 절로 들어갔을 것이니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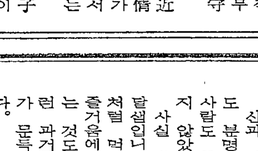
네, 내 연구실은 여전합니다. 비좁은 책꽂이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다시 杜詩와의 씨름이지요. 흑 생각이 나면 이렇게 화개를 치는 젊음이 있읍니다. 이젠 돈을 벌기도 틀렸고, 누가 뭣 이 됐다고 솔깃할 주제도 못되니, 그저 내친 젊음이니 뚜벅뚜벅 정진하렵니다.

회혜으로 고까왔던 상처도 가셨고, 도형의 바독도 읽은 나머지이니 계속 杜甫와의 싹사람으로 더위를 잊으렵니다.

왜 韓愈의 「進學解」에도 그랬지 않았어요. 아니 세익스피어도 그랬죠. 그 렇다고 갑히 그 높다란 어깨와 팔에를 나란히 할 생각은 꿈에도 生心친 않읍니다. 그냥 그래 보는 고집이지요. 흔히들 붙에는 自然을 읽고 여름에는 文學을 읽고 가을에는 哲學을 읽고 겨울에는 科學을 읽어라지요. 그래서 우리조상네도 여름이면 唐詩를 읽고 小說을 읽어 잠을 쫓고 더위를 물리쳤지요. 李白도 좋고 옛리옷도 좋지요. 三國誌도 좋고 「水滸誌」도 좋고 말고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에프스키도 좋고, 조용한 山寺에서라면 「論語」도 좋고 「孟子」도 좋고 말고요. 「뿌리」도 좋고 「春春傳」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갈피마다 가라앉은 捨象의 앙금을 다 잡으란 말입니다.

아무리 電子시대라지만 그 알량한 「바보상자」에 빌붙지 말고 직접 환장석 넘겨 독파하는 맛을 차지하란 말입니다. 더구나 해야할 제가 다이제스트를 슬쩍건넝해가지고 퀴즈의 박사가 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악은 물들이 보다 미욕한 역적이 돼야 책이 주는 강한인 상을 평생까지 누린다니까요.

나야 지지리도 못나서 梁柱東선생의 「朝鮮古歌硏究」를 모조리 베끼는 내기를 했지만, 차우간 찬바람이 감도는 새학기에는 사뭇 팔목상대하는 東岳의 主人이기를 간구하면서 다사한 봇을 놓니다. 「思皇多士 生此東岳」。 唯。



大學閑話

허공에 쓰는 편지

李丙疇 〈文理大敎授〉

大學發展 위한 敎授 座談會

敎授 公採·養成병행, 敎育權 중시

▲朱宗桓=결국 大學구성의 그 기본적 단위인 각과가 제대로의 그 기능을 다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는 세포에 비유한다면 하나는 하나의 세포가 건전할때 大學자체가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읍니다. 이러한 이해가 어느때나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昌培=한 大學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난제입니다. 이것은 대학의 경영, 교수가 공부하고 육성하는데도 어떻게 良質의 재목으로 양성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朱宗桓=이것에는 실험대학이 되는것 이 두렷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本校를 포함한 우리나라 大學들은 역사는 깊어도 그 전통성이 희박합니다. 敎授의 원천적인 권위는 敎授와 교육과정의 작성인데, 카리큘럼조차도 學科敎授가 소외된 가운데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大學은 行政的 효율화보다도 敎育的효율화가 기본이 돼야합니다. 大學의 行政 체제를 總長 중심제라 한다면, 그 중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核은 학과라는 사실이 명확히인식되어서 학 담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말은 학담위 中心으로 교수의 敎育權과 敎育課程權이 중요시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翌박사 의견에찬성합니다. 그러나 科의 敎授陣이 강화돼야합니다. 여기서 우수한 교수의 확보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과에 소속된 敎授自體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자가 그러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중요냐하는것은 그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원활화되기위해서는 디파트먼트 중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즉 敎授自體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자가 그러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중요냐하는것은 그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沈載厚=이것에는 실험대학이 되는것 이 두렷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本校를 포함한 우리나라 大學들은 역사는 깊어도 그 전통성이 희박합니다. 敎授의 원천적인 권위는 敎授와 교육과정의 작성인데, 카리큘럼조차도 學科敎授가 소외된 가운데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大學은 行政的 효율화보다도 敎育的효율화가 기본이 돼야합니다. 大學의 行政 체제를 總長 중심제라 한다면, 그 중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核은 학과라는 사실이 명확히인식되어서 학 담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말은 학담위 中心으로 교수의 敎育權과 敎育課程權이 중요시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翌박사 의견에찬성합니다. 그러나 科의 敎授陣이 강화돼야합니다. 여기서 우수한 교수의 확보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과에 소속된 敎授自體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자가 그러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중요냐하는것은 그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원활화되기위해서는 디파트먼트 중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즉 敎授自體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자가 그러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중요냐하는것은 그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金鎔貞=말씀하신 등에 미안합니다.

▲朱宗桓=여기에는 실험대학이 되는것 이 두렷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本校를 포함한 우리나라 大學들은 역사는 깊어도 그 전통성이 희박합니다. 敎授의 원천적인 권위는 敎授와 교육과정의 작성인데, 카리큘럼조차도 學科敎授가 소외된 가운데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大學은 行政的 효율화보다도 敎育的효율화가 기본이 돼야합니다. 大學의 行政 체제를 總長 중심제라 한다면, 그 중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核은 학과라는 사실이 명확히인식되어서 학 담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말은 학담위 中心으로 교수의 敎育權과 敎育課程權이 중요시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翌박사 의견에찬성합니다. 그러나 科의 敎授陣이 강화돼야합니다. 여기서 우수한 교수의 확보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과에 소속된 敎授自體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자가 그러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중요냐하는것은 그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원활화되기위해서는 디파트먼트 중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즉 敎授自體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자가 그러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중요냐하는것은 그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李昌培=교육행정에는 일관성이 부여되야하고 결정된 方案은 반드시 나아갔어야 합니다. 實驗大學이라고 하면 學校교육을 개혁해보자자 하는 것이 근본의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할 것의 변화만 시도한다면, 지금 다르大學에서 겪고있는 것같은 부작용만이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폐단은 학점 인정에서 문제입니다. 과제를 내고 가정에서 공부해야되는데, 그렇게 전공이 완전히 학습된다는 학생들의 비판론은 없지 않습니다. 또한 가할만한 人力의 부족도 문제이고, 교수가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용이하지 않다. 도해 교수의 敎育權과 敎育課程權이 중요시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교수는 상식적인 基準에 의해 채용한다는 그 방법도 논의되어야할 것입니다.

▲李昌培=한 大學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난제입니다. 이것은 대학의 경영, 교수가 공부하고 육성하는데도 어떻게 良質의 재목으로 양성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金鎔貞=말씀입니다. 新入生 입시제도를 두어 그 방법을 다원화 하는 方法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司會=部의 入試제도는 그러니까 필답시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전형제도로 入試를 다원화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종합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學生들의 면학분위기를 심화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4년 동안 어떻게 지도해야 느냐 하는 교수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옮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良質의 재목으로 양성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蘇鍾根=말씀입니다. 新入生 입시제도는 단선화할 필요없이 특별전형제도를 두어 그 방법을 다원화 하는 方法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司會=部의 入試제도는 그러니까 필답시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전형제도로 入試를 다원화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종합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學生들의 면학분위기를 심화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4년 동안 어떻게 지도해야 느냐 하는 교수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옮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良質의 재목으로 양성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蘇鍾根=교육의 지도 이념에 귀기울이는 것이 더 加重되는 것이다. 全東國人의 뜨거운 拍手를 받으며 本大學의 總長職에 就任한 鄭在覺박사도 부푼 東國人의 期待를 衰現하는 박수에 報答하려는 많은 大學行政의 計劃과 이계획을 學事行政에 옮기는데 남모르는 心勞가있을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未來의 本大學人이 바라는 바를 本報를 통하여 新任總長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 첫째는 建學精神의 具顯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과제이다. 本大學 學則 제1조에도 明示되어 있는바 本大學의 建學精神은 佛敎의 深奧한 眞理를 理解하는 知識人의 養成에 있다.

佛敎는 그것이 비록 外國에서 開敎되었으나 우리나라에 傳來이후 千六百年間에 걸쳐 그 無限한 慈悲力의 倫理德目은 우리 국민에게 깊이 尊嚴性과 平和追究가 바탕이되는 「弘益人間」의 國家建設을 理想으로 하게 되었다. 또 그 슬기로운 知識追究는 豐富한 情緖를 우리에게 심어 世界에 자랑할수 있는 佛敎藝術로 우리의 文化史를 裝飾하였고 깊은 哲學을 論證하는 그 偉大한 業績은 우리의 國土를 外侵으로부터 守護하는데 눈부신 活躍을하였던 훌륭한 우리의 傳統文化인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生産위주, 특히 大企業에의한 大量生産을 國家政策의 第一義로 하는 高度成長의 産業經濟政策이 持續되는 社會에서는 흔히 傳統文化의 前進을 위한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斷定하고 輕視하는 風潮가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도성장의 그늘에 도사리고 있는 機械萬能에의한 人間疏外 人間地位의 低下, 價値觀의 混亂등 極히 어두운 면도 認識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인간不在의 이 산업사회에서 우리에게 삶의 勇氣와 智慧를 주고 日日을 위한 活力素로서의 傳統文化가 再認識될 수 있다면 本大學의 建學理念과 그 具顯은 결코 歐美산업경제의 발전을 모델로 하여 돕음하는 이른바 近代化의 沮害要因으로 볼것이 아니라 오히려 次元높은 前進의 促進要素로 轉換시킬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한다.

다음으로 新任總長에게 期待를 거는 것은 오랜 校史의 年輪을 거듭하는 過程에 쌓인 積弊의 果敢한 淸算과 새傳統定立의 기틀을마련하여 달라는 것이다.

본교가 國內大學으로서는 開校72年이라는 屈指의 傳統을 가지고있는 東國人의 모두가 자랑삼고 있다. 그러나 傳統은 時間의 經過에 따라 새로운 時代에 不適한 요소가 생기며 그때마다 前進에 沮害되는 요소를 淸算하고 새로운 요소를 받아 自己體質에 알맞도록 요소를 再生産하지 않으면 價値가 없는 것이다.

本大學에는 大學의 內實化를 위한 前進에 不必要한 요소가 적지 않다. 예컨대 본교에서의 寬容의 美德은 本大學의 人寄行政面에서 지적 육되어 그 사람의 能力보다 너무나 人情的인 경향을 그대로 墨守하고 있다.

有名한 어떤 社會科學者가 前近代社會와 近代社會의 區分은 人情的이냐 沒人情的이냐에 있다면 가장 尖端을 걸어야 하는 大學에서 前近代的인 遲營을 固守하고 있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國內에서 가장 窘迫이 큰 電子計算機를 保有하고 있는 本大學이 他大學에서 이미 實施하고있는 學籍簿등의 機械化를 企圖조차 하지 않은것이 萬一 學內 部에서 떠돌다는 것이 그 理由의 一部가 된다면 本大學의 將來를 위하여 큰 不幸일 것이다.

이밖에도 短見으로 지켜 내려온 秀組學科에 대한 果敢한 經營方案의 樹立과 建學 理念의 地方擴散을 위하여 發想된 分校設置問題등 本大學의 앞날에 解決해야 할 많은 課題를 冷靜한 批判眼과 任務感에서의 情熱로서 차분차분하게 處理하여 즐겁게 나갈 것이다.

改革의 욕과 體質改善이 問題

下等精神機能 강조하는 風土쇄신을

敎育的반성 수시로 가져 면학분위기 조성

▲蘇鍾根=敎育學的인 측면에서보면 「머리가 좋다」라는 것은 다분히 기억력을 말하는데, 이런 것은 下等정신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리력이나 구성력, 종합능력등이 高等精神機能입니다. 우리나라의 敎育은 오히려 머리 좋은 학생만을 요구해왔지 고등정신기능을 계발하는 방법은 본격적으로 교육에도 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女子가 男子보다 하등정신기능이 우세하게 발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여학생 수석졸업자가 많아지는 원인은 자평합해선 안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女學生이 수석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많은 차지하는데서 女學生수석이 나오는 현상은우리나라의 敎育은 오히려 고등정신기능을 敎育學的인 측면에서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도를 반성하고, 세미나식 교육 방향안이 점진적으로 실정에맞게 모색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司會=다음으로 학교시설은 대학의면학분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學生들을 공부하도록 유인하려면 그만한 시설과 환경이 확보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蘇鍾根=大學의 건물이나 시설은 일종의 文化財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는데있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戰時의 바로크 건물이 문화재가 될수는 없읍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무방한 것입니다.

▲金鎔貞=역시 환경이 인간의 습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사람이 깨끗한 곳에서 함부로 할수 없듯이 文化財가 될만한 건물에서는 自然發生的으로 아끼는 마음이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大學建物은 「文化財」

企劃機能 강화돼야

▲沈載厚=조경문제만 하더라도 좀 심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경위원회가 교내에 있읍니다만 그것을 상임기구화해서 조경문제만을 다루게 하지만 그 기능이 무엇인가하는 핵요소와 大學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향하는 목적인 기능요소가 일치하는 곳에서 理想을 찾을 수 있읍니다. 구성인 개개인의 목적과 불쾌자원, 기획의 조직화와 그 통제력이 상호 협조체제로 묶여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수가 總長이 바뀔때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이해가 어느때나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朱宗桓=適者生存의 원칙이 없지않습니다만 助敎制는 그들을 外部의 관련 염구기관 등에 파견해서 공부시킨 다음 다시 學校로 되돌아오게 하는 장기적 방법도 생각할수 있읍니다.

▲金鎔貞=본교는 사실 기본적으로 수요원의 양성에 있어 동합했다고 해교도 파언이 아닙니다. 외국에 유학을보내는 등의 투자를 결단성있게 수행하여 大學의 學問的 이미지를 나날이새롭혀 가야합니다. 오늘의 사회는 집단화를 요구하고 있고, 집단과 집단간의 경쟁관계는 불가피한데, 가만히 앉아서 適者生存만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신입생 모집정책도 특색있는 문을 여는등 보다 적극적으로 본교의 體質을 혁신해야합니다.

▲蘇鍾根=말씀입니다. 新入生 입시제도는 단선화할 필요없이 특별전형제도를 두어 그 방법을 다원화 하는 方法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司會=部의 入試제도는 그러니까 필답시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전형제도로 入試를 다원화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종합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學生들의 면학분위기를 심화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4년 동안 어떻게 지도해야 느냐 하는 교수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옮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良質의 재목으로 양성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蘇鍾根=교육의 지도 이념에 귀기울이는 것이 더 加重되는 것이다. 全東國人의 뜨거운 拍手를 받으며 本大學의 總長職에 就任한 鄭在覺박사도 부푼 東國人의 期待를 衰現하는 박수에 報答하려는 많은 大學行政의 計劃과 이계획을 學事行政에 옮기는데 남모르는 心勞가있을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未來의 本大學人이 바라는 바를 本報를 통하여 新任總長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 첫째는 建學精神의 具顯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과제이다. 本大學 學則 제1조에도 明示되어 있는바 本大學의 建學精神은 佛敎의 深奧한 眞理를 理解하는 知識人의 養成에 있다.

佛敎는 그것이 비록 外國에서 開敎되었으나 우리나라에 傳來이후 千六百年間에 걸쳐 그 無限한 慈悲力의 倫理德目은 우리 국민에게 깊이 尊嚴性과 平和追究가 바탕이되는 「弘益人間」의 國家建設을 理想으로 하게 되었다. 또 그 슬기로운 知識追究는 豐富한 情緖를 우리에게 심어 世界에 자랑할수 있는 佛敎藝術로 우리의 文化史를 裝飾하였고 깊은 哲學을 論證하는 그 偉大한 業績은 우리의 國土를 外侵으로부터 守護하는데 눈부신 活躍을하였던 훌륭한 우리의 傳統文化인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生産위주, 특히 大企業에의한 大量生産을 國家政策의 第一義로 하는 高度成長의 産業經濟政策이 持續되는 社會에서는 흔히 傳統文化의 前進을 위한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斷定하고 輕視하는 風潮가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도성장의 그늘에 도사리고 있는 機械萬能에의한 人間疏外 人間地位의 低下, 價値觀의 混亂등 極히 어두운 면도 認識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인간不在의 이 산업사회에서 우리에게 삶의 勇氣와 智慧를 주고 日日을 위한 活力素로서의 傳統文化가 再認識될 수 있다면 本大學의 建學理念과 그 具顯은 결코 歐美산업경제의 발전을 모델로 하여 돕음하는 이른바 近代化의 沮害要因으로 볼것이 아니라 오히려 次元높은 前進의 促進要素로 轉換시킬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한다.

다음으로 新任總長에게 期待를 거는 것은 오랜 校史의 年輪을 거듭하는 過程에 쌓인 積弊의 果敢한 淸算과 새傳統定立의 기틀을마련하여 달라는 것이다.

본교가 國內大學으로서는 開校72年이라는 屈指의 傳統을 가지고있는 東國人의 모두가 자랑삼고 있다. 그러나 傳統은 時間의 經過에 따라 새로운 時代에 不適한 요소가 생기며 그때마다 前進에 沮害되는 요소를 淸算하고 새로운 요소를 받아 自己體質에 알맞도록 요소를 再生産하지 않으면 價値가 없는 것이다.

本大學에는 大學의 內實化를 위한 前進에 不必要한 요소가 적지 않다. 예컨대 본교에서의 寬容의 美德은 本大學의 人寄行政面에서 지적 육되어 그 사람의 能力보다 너무나 人情的인 경향을 그대로 墨守하고 있다.

有名한 어떤 社會科學者가 前近代社會와 近代社會의 區分은 人情的이냐 沒人情的이냐에 있다면 가장 尖端을 걸어야 하는 大學에서 前近代的인 遲營을 固守하고 있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國內에서 가장 窘迫이 큰 電子計算機를 保有하고 있는 本大學이 他大學에서 이미 實施하고있는 學籍簿등의 機械化를 企圖조차 하지 않은것이 萬一 學內 部에서 떠돌다는 것이 그 理由의 一部가 된다면 本大學의 將來를 위하여 큰 不幸일 것이다.

이밖에도 短見으로 지켜 내려온 秀組學科에 대한 果敢한 經營方案의 樹立과 建學 理念의 地方擴散을 위하여 發想된 分校設置問題등 本大學의 앞날에 解決해야 할 많은 課題를 冷靜한 批判眼과 任務感에서의 情熱로서 차분차분하게 處理하여 즐겁게 나갈 것이다.

'78 세계유행패턴 120종 중에서 선택된
13종의 비비안 수영복.

이름처럼예뻐요
비비안
수영복

비비안 수영복을 입고 저 멀리 보이는 모래섬으로 헤엄쳐 나갑시다.
비비안 수영복으로 아여름을!
— 비비안 수영복은 특수 나일으로 처리된 직선무늬와 꽃무늬로 발랄한 젊음을 느끼게 합니다.
— 개량된 루웨이얼단(나이론 70D 스판텍스 70D)의 사용으로 가볍고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 미국식 디자인의 백베어 스타일과 할터넥크 스타일로 개방적이고 우아합니다.
— 120종 중에서 엄선된 수영복13종과 남성용 수영복이 있읍니다.

깊은멋 * 높은품위
미쎄스나이론

가격 : 원피스 7,500원~9,300원
비키니 5,500원~6,600원
남자용 : 3,600원

새 멋을
느껴 보셔요

BODY FASHION
라보라
LAVORA
스 타 킹
외온더이슨
쉽 지 리

유영산업
서울 · 도봉구 방학동 219
공장전화 : 98-2151-3
영업부전화 : 91-1441

研究室隨想

齊山書室記

崔世和 〈師範大敎授〉

齊山書院은 나의 오죽잖은 서재의 이름이다。 실은 내놓고 서재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것에, 이름까지 붙이는 것이 어중된일이란 생각도 들었지만, 과욕을 버리고 古人의 풍류를 본받아, 마음에 드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내 서재에 애착심을 더하게 할수있다면, 書生으로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을듯 여겨져서 붙여 본 이름이다。 그런데, 이젠 출입문 옆 壁面에, 夏村兄의 「齊山書院」 額書 扁額까지 걸렸으니, 그렇저렇 어엿한 내 서재 이름으로 굳어 버린 셈이다。

書室에 冠한 「齊山」은, 夏村兄이 그 書額에 「齊山學兄 倣古人之風流 以其自號 書室爲銘」 (齊山學兄이 古人의 風流를 따라 송 앙욱이다。 이 신축건물이 들어선 자리엔, 한 50평되는 菜田을 일구어, 겨울 한 철을 빼어 성으로 가꾸어진 때문에, 남다른 情이 들고, 따라서 나에겐 여간 애착심을 더하게 할수있는 것보다는 여겨져서 붙여 본 이름이다。 그런데, 이젠 출입문 옆 壁面에, 夏村兄의 「齊山書院」 額書 扁額까지 걸렸으니, 그렇저렇 어엿한 내 서재 이름으로 굳어 버린 셈이다。

書室에 冠한 「齊山」은, 夏村兄이 그 書額에 「齊山學兄 倣古人之風流 以其自號 書室爲銘」 (齊山學兄이 古人의 風流를 따라, 자호 齊山을 내 집이 南으로 보는 京畿 金剛이라 일컫는 冠岳의 연봉을 바라보고, 北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漢水를 굽어보는 江언덕에 자리하여, 가까이는 南山을 마주보고, 멀리는 北漢을 중심으로, 東으로는 道峰의 峯巒을, 西로는 北岳·仁旺·毋嶽·臥牛의 諸山이 屛風처럼 둘러있어, 春·夏·秋·冬 철철이 변화하는 山色의 흥취를 즐길 수있는데 연유하거니와, 더불어 「仁者樂山」의 뜻을 새겨 自號한 것이다。

「齊」는 「等也」(같다)라, 내 身의 目標로 山과 가지런해지자, 즉 山을 닮자는 것이요, 나아가 不敏하지만 樂山하는 仁者의 德行을 배우자는 마음가짐이다。

이런데, 仁者樂山의 文句에 끌려 언뜻 「樂山」을 택할수도 있겠는가, 정말 樂山하는 자는 곧 仁者이니, 어찌 감히 이를 택하랴。 忘想도 類萬不同이라 할 것이다。

지금 사는 집은 옛집의 庭園인 菜田에, 지난 봄 新築한 단층 기와집

分配論의 理解

特輯

○…… H. J. Laski는 그의 著書 「近代國家에 있어서의 自由」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臨迫한 災難에 대한 그들의 괴로운 感情, 永遠히 얻을 수 없는 美에 대한 그들의 發作的 探究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經濟的 保障없이는 自由는 가질만한 價値가 없다는 것을 充分히 認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歷史 發展의 意味를 自由와 富의 擴大에 두는 경향이 일고 있다. 資本主義가 발전함에 따라 世界는 物質的 번영은 가져왔으나 그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高度成長에 따른 물질적·도덕적 병폐를 극복하려면 富의 分配問題가 제기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時點에서 分配의 宗敎的 또는 學問的인 原理를 천착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編輯者註>

佛敎法의 分配

佛敎學的 측면

<佛敎大 敎授> 金煐泰

經濟學 용어로서의 分配論을 佛敎的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分配 그 자체를 불교의 입장에서 論及해 보려고 한다.

오늘날의 資産이 없지만 부성(富性)에 있어서는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재산의 전부였다. 그러므로 佛敎人의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은 財産(生産物)이 아니라 無價의 眞寶인 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眞理)의 敎法(法) 또는 대상(對象)이라고 할 것이다. 正法은 俗諦(生産物)의 分配論과 眞諦(佛敎)의 分配論의 주된 내용이다. 俗諦의 分配論은 이제 佛敎에서는 眞諦의 分配論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俗諦의 分配論은 그 性格상 眞諦의 分配論에 종속되는 것이다. 한편 俗諦의 分配論은 佛敎에서는 한낱 分配의 수단에 불과하다.

『傲慢하여 他人으로 하여금 安樂을 얻게하며, 他人으로 하여금 베푸는 마음(施心)을 일으키게 합이오, 諸聖人의 道를 행하기 위하고 때문이며, 모든 번뇌를 끊고자하는 때문이라고 하여 있어서, 재물을 나누어 주는것도 결국은 法을 베풀어 주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번뇌와 생사의 苦를 벗어나게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財施도 法施에로 귀착되어 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철사 法이 아닌 財物로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경우에라도 불교에서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財施를 베풀어 주는 것을 (暗興)하여 주는 것을 (施)라고 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施)라고 하는 것은 주기 납에게 주는 것이 없이 주는 경우, 납은 받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주는 경우, 본의는 아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는 마지못해 주는 경우와 순수하게 정말로 주는 경우, 전연 他意에 의한 강압으로 주는 경우와 순수하게 주는것도 있어서 기꺼히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있으며, 주는 것은 財施도 法施에로 귀착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財施는 法施에로 귀착되어 있을 것이다.

淸淨無垢한 正法만을 베풀어야 法布施는 贈와 分配보다 惠施를

이러한 것은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暗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淸淨한 五種寶가 있다고 하여, 바라는 것(希望) 없이 베풀어줌이요, 뭇사람에게 베풀어주어서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大寶積經』에는 可施치 못할 것을 들고 있는데, 첫째 비理로 얻은 재물을 남에게 베풀어주어서는 안될 것을 들고 있는데, 둘째 술 또는 毒藥을 남에게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생을 어지럽게하기 때문이며, 세째 칼과 활등을 남에게 주지 않아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法의 寶物을 다름이 없이 親·不親이나 厚·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布施라고 하는 것은 財布施와 法布施가 있지만 그 재물이 순수하게 베풀어(나누어) 준다고 할 때에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할 것이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法布施라고 하는 것이 중생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 法은 法의 寶物을 다름이 없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布施는 財布施와 法布施로 나누어 주어야 할

大學의 現場學習

現場學習의 敎育的 意義

理論의 실제적용, 應用力 평가기회

産業化 社會에선 奉仕아닌 自己學習

金憲奎 〈師範大교수〉

여름 방학에 접어들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농촌이나 각종 産業體, 유적지등을 찾아 實習, 資料수집 또는 답사등을 떠나고 있다. 이른바 現場學習인 것이다.

大學生들이 찾는 현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농촌이었고 주된 일무는 봉사활동 이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 樣態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經濟成長의 결과, 또는 原因的 현상으로 産業體의 수가 늘고 大形化해 가고 있으며 각종 연구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으로 주로 奉仕活動에 그치던 大學生들의 휴가중 활동이 見學·實習·踏査·調査硏究등 학습의 성격이 농후한 활동으로 그 樣相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本校에서도 工大, 農大, 商大, 佛大 학생들의 일부가 그리고각 연구 서어를 별로 각종 現場學習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휴가중에 現場學習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가 문제일것이다. 現場學習이 뜻있고 성과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다.

이 글에서 필자는 現場學習의 의의와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위하여 고려 해야할 몇가지 유의점들을 밝히고자 한다.

I. 現場學習의 意義

現場學習의 첫번째 의의는 實證的 연구의 기회를 갖는데 있다. 大學에서의 강의는 주로 강의실내에서 學問的인 理論과 知識의 交流로서 많은 學者들이 쌓아 올린 學的 體系를 학습함뿐 그것이 바로 社會의 現實과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허다 하다. 그러므로 現場學習의 기회를 통하여 社會現實을 정확히 관찰하고 분석하며, 學問的이론이 실제에 어떻게 적용 되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며 實際적 응용 시험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理論的 학습은 남의 이론의 수준에서 나의 지식의 수준으로 소화될 수 있는 것이다.

現場學習이 갖는 두번째의 意義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학습의 결과가 그것이 순수학문 분야이든지, 응용기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現場學習을 의의있게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자기의能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大學의여건으로는 대체로 능력이 갖춰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능력발휘의 시기를 졸업 후로 지연 시켜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能力을 축적하여 뒤에가서 크게발휘 하는것도 의미있는 일이겠으나 현장학습을 통하여 어떤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能力을발휘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개인적으로는 계속적 발전을위한 동기가 장화될것이며 自信感이 생겨 날 것이다.

現場學習이 갖는 네번째의 의의는, 장차 職業에 대한 적성을 검진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것이다. 우리는 흔히 검사나 적성검사를 통하여 각자의 직업적성을 어느정도 진단할수 있다. 그러나 大學의 學科를 택할때부터 그와 같은 검사의 결과를 참고 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뒤따르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처음에 직업을 택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는 절실한 것이다. 현장학습을 장차의 직업 선택에 관한 최종적 진단단계가 되어야할 것이다.

현장학습은 대체로 위와 같은 현장학습도 교육과정의 전체구조의 한 요소로서 다른 요소들과의 機能的 관계가 뚜렷이 밝혀져있어야 하며 조직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현장을 통하여 무엇을 觀察한다는것은 그저 보고 오는것과는 다르다. 단순히 보는것(視)은 모든 동물들이 다할수 있지만 「觀」은 사람만이 할수있다. 관찰은 知的인 행동이라 觀察을 위해서는 일정한 「觀點」이 필요하며 觀察한다는것은 이觀點에 의하여 어떤 현상을 해석한다는것을 뜻한다. 大學에서의 學問的인 理論과 知識은 주로 교수들과 학습함뿐 그것이 바로 社會의 現實과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허다 하다. 그러므로 現場學習의 기회를 통하여 社會現實을 정확히 관찰하고 분석하며, 學問的이론이 실제에 어떻게 적용 되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며 實際적 응용 시험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理論的 학습은 남의 이론의 수준에서 나의 지식의 수준으로 소화될수 있는 것이다.

現場學習이 갖는 두번째의 意義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학습의 결과가 그것이 순수학문 분야이든지, 응용기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現場學習을 의의있게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자기의能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大學의여건으로는 대체로 능력이 갖춰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능력발휘의 시기를 졸업 후로 지연 시켜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能力을 축적하여 뒤에가서 크게발휘 하는것도 의미있는 일이겠으나 현장학습을 통하여 어떤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能力을발휘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개인적으로는 계속적 발전을위한 동기가 장화될것이며 自信感이 생겨 날 것이다.

現場學習이 갖는 네번째의 의의는, 장차 職業에 대한 적성을 검진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것이다. 우리는 흔히 검사나 적성검사를 통하여 각자의 직업적성을 어느정도 진단할수 있다. 그러나 大學의 學科를 택할때부터 그와 같은 검사의 결과를 참고 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뒤따르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처음에 직업을 택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는 절실한 것이다. 현장학습을 장차의 직업 선택에 관한 최종적 진단단계가 되어야할 것이다.

현장학습은 대체로 위와 같은 현장학습도 교육과정의 전체구조의 한 요소로서 다른 요소들과의 機能的 관계가 뚜렷이 밝혀져있어야 하며 조직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현장을 통하여 무엇을 觀察한다는것은 그저 보고 오는것과는 다르다. 단순히 보는것(視)은 모든 동물들이 다할수 있지만 「觀」은 사람만이 할수있다. 관찰은 知的인 행동이라 觀察을 위해서는 일정한 「觀點」이 필요하며 觀察한다는것은 이觀點에 의하여 어떤 현상을 해석한다는것을 뜻한다.

현장학습이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어떤 문제나 檢證되어야할 어떤 가설을 사전에 갖고있어야 한다. 무엇을 찾아볼 것인지를 모르고있으면 볼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知的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論理的 觀察, 이론적 體系 또는 어떠한 종류의 哲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觀點, 理論, 또는 철학이 없이는 사람의 경험은 혼돈한 인상들의 集合에 그치고 말며,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는 학습은 커녕 귀중한 시간의 낭비밖에 아무 의미가 없다. 觀察은 일정한 관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결과 많은 학생들이 전과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않아 전공학과에 불만을 안은채 졸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업은 대개의경우 한번택하면 일생을 그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따라서 처음에 직업을 택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는 절실한 것이다. 현장학습은 장차의 직업 선택에 관한 최종적 진단단계가 되어야할 것이다.

현장학습은 대체로 위와 같은 순이 되는 경우가

○…… 여름文壇에 東國人의 活動이눈부시다。
○……在學生중 黃淸圓(佛伽·3)스님과 김강
○……태(국문·4)군이 각각 「現代文學」(8
○……월號)과 「韓國文學」誌에 추천완료 또는
○……新人作品賞 수상(8월號)으로 문단에첫
○……발을 내딛었는가 하면, 金容彪(78·佛敎
○……科)동문은 「月刊文學」新人賞(8월號)을
○……수상, 데뷔함으로써 8월을 맞아 세 東
○……國人이 한꺼번에 詩人으로 등단, 本校문
학전통의 계승 발전에 밝은 빛을 던져……○
주고 있다。또한 중견詩人 浪承萬(60·……○
國文)동문도 文藝振興院제정 「제3회 反……○
共文學賞」(文公部 長官賞)을 수상하는……○
동 잇단 慶事로 東國文壇은 一大轉機를……○
마련하고 있다。동단한 東國詩人의 新作……○
들과 인터뷰, 그리고 浪동문의 受賞소식……○
을 엮어본다。 ……○

古典의 달

—金容彪

귀 기울이려무나
저기 불타는 한 떼의 노을을 위해
빈 馬車가 들아으고 있다。

古典의 달
확려한 눈물 속의 馬車。

우리들은 여름의 빗장을 열고
귀기울이누나
그녀의 가슴
가느런 빗방울을 장막을 넘어
흘로 눈 뜨는 여울을 소리。

불타던 花園의 門도
이제는 닫히여 가는구나
古典의 달
잃었던 소리 함께 외치듯 돌아오는
저녁마다 젊음은 눈을 뜨고
그리고 우리의 靈은
李白만큼이나 외로웠다가
쓸쓸한 잎술 위에서 빛난다。

귀 기울이게 하라, 저 홀로
목숨의 끝에 닿았다가 돌아오는
빈 馬車, 울리는 끝에서
떠으르는 달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나게 하라。

※이작품은 金容彪의 月刊文學 新人賞수상작。同誌8月號에서 전재 했음。

蘭을 보며

—黃淸圓

이른 봄 날 피아골 눈발이 흩어져
한줄기 물길을 이룬다면
물길 흘러드는 山은 다 멤돌다가 멤돌다가
細石平田 잠잎 피는 소리 들리거든
날개 무성한 純金의 세나 되어서
작은 平和라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성한 깃발이라도 되어서
생나무 척척 갈라지는 酷寒에도
벗은 뿌리 하나로 방을 메우고
떼른 산 무너진 황톳물에 몸을 적셔
蟾津江 上流쯤 이나라 돌멩이로 흐르거라。
어린 속잎 내어 젖은 세상이나 감추거라。

·<詩人·佛敎大 僧伽科>

同行의 바다

—김강태

上流에서 자란 지난날이 즐비한 거리와 거리
물갈퀴의 비늘부채가 버려지고
용하게 헤엄을 익히다가 버려지고
全裸에 묻는 비늘 半獸身을 벌안간
쪽배에 연혀 철벽이는 숨쉬기를 보았다

차가운 形容詞만 쓸어 모아서
願往生 半獸身의 分身이 願往生
괄괄괄랑
꽂히는 原木의 筋肉마다 찾아 다녔다
속껍질에 휘묻힌 뼈마디의 앙상블
흔미한 머리위로 햇발쳐럼 내리깔리는 쇠그물,
꼬리의 횡포를, 갑푸른수염을 보았다
마지막 原形質이 울고 있을 때
點點이
찍는 연습하는 漁夫의 날 끝,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의
슬픈 童貞을 보았다
석여지는 여러 살(肉)을。

<詩人·文理大 國文科>

여름文壇에 跳躍하는 東國詩人들

詩人3名 탄생, 浪시인은 反共文學賞 가지

現代文學(8월號)에 薦了된 黃淸圓스님

黃淸圓(송가·3)스님이 「겨울 들판에서」외 2편의 詩로 「現代文學」(8월호)에 추천을 완료。同誌 4월호에서 「마음동경」으로 1회추천을 받았던 淸圓스님은 이미 大韓佛敎新聞 신춘문예에 당선되였던 경력이 있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우리네 생활과 밀접한 詩 生과 호흡이어린 詩를 쓰고싶습니다。』

열심히 淸圓스님은 바람·山·풀·꽃등 자연을 중심으로한 「한 소재를 지수 다룬다。「불교적인 안정된 솜씨를 갖고 있다」는 衆評。

「불교적이를 詩속에 남발함으로써 불교의 외면적 년생만 풍기고 싶진 않습니다。다만 詩의 저변에 맥맥히 흐르는것은 역시 佛敎의 思想 이지요」라고 밝히는 淸圓스님은이른바 「僧侶詩人」이란 말에는 저항감을 느낀다고했다。

『어떤분은 詩 쓸때면 한 번 읽고 나서 그 자리에서 메모를 남겨놓는 수가 있어요。낮에는 상관하지 않아요。낮을 잡으면 魂은 詩的상황에도 떠나 가니까요。』

「詩想이 스치면 그 자리에서 메모를 정리하죠。나중에 그것을 정리하면 화랑에 가서 비구상 화풀 보면서 詩想을 이어갑니다。제경우엔 퍽 효과적이였던것 같습니다』

韓國文學 新人作品모집에 당선된 김강태君

金강태(文理大國文科·4)군이 詩 「中心바다」로 「韓國文學」(8월호)社 제7회 신인작품모집에 당선, 문단에 첫발을 내딛였다。

한국문학誌에서는 지난 2년간 新人작품을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총 5백27편의 응모작품중 金군등을 당선시킨것。특히 金군은 시·소설·평론등 5명의 당선자중 최연소자라는 점에서 관심을모았다。심사위원 徐廷柱·朴在森·李根培 諸氏는 金군의 詩를 『최근 우리 시단의 그 어느 경향에도 속하지 않는 활달한 感性의 전개가 강렬히 사로잡는다』: 작가가 추구하는 세계는 한국적 자연의 재체를 서정으로 불러 일으키는 저古典의 바탕을 잘 살리고있는 점이 내일을 믿게한다」고 評하고 있다。

72年 입학, 국문과 고참(?)인 金군은 국문과 학회장을 맡아오면서 「겨울詩展」이란 개인 詩畵展을 두번 개최하는등 활발한 활동을해왔다。

「첫 夢精하는 기분」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담담숨집 아줌마가 외상술값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라고 예의 美男型이 지니기 마련인 미소를 담는다。

『詩는 「이마쥬」여야 합니다。상상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고 所見을 밝히는 金군은 「가스통·바슐라르」의 詩的 사유방식이 매우 고백적이라고 「눈물」이라는 소재를 자주 취급하며, 「흐름」과 「同行」이라는 「이마쥬」에 탐닉하고있다。

『東國文學徒들에 주고싶은 말이 많습니다。「東國文學」誌도 學校의 정기간행물로서 續刊되어야겠고, 東國文學會創作敎室도 內實을 기해야 겠습니다。대학발국은 본교의 특성인 文學的傳統에 눈을 돌려야할때』라고 힘주어말한다。6·25戰亂이 발발한 50년생으로 충남 부여산。인천大建高卒。

亞流아닌 個性…장래에 큰기대 이미지로 북녘소리를 생생한

浪承萬(詩人·60·國文)동문은 長詩·詩集 「北녘 바람의 歸順」으로문예진흥원에서 제정한 제3회 反共文學賞(文公部長官賞)을 受賞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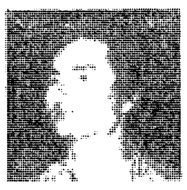
受賞作 「北녘 바람의 귀순」은 지난 4월, 발간되였는데, 浪동문은 後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分斷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傷痕은 아직도 아물지 못한채 남아있다。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박힌 탐피는아직도 뽑아지지 않고 있거리는 우리 반동장이生命(민족)이 저 북녘에 있다는 확實。우리 (柳)명의 속에 갇혀있는 반동강생 소리를 그 절대자유의 소리를 잊어서는안 되지 안겠는가』

우리의 肉身을 국토에 비긴다면 우리의 정신과 심장은 곧 민족이라하겠다。그 절단된 육신과 끊어진 심장을 다시 이어야할 숭엄한 역사적과제가 우리앞에 놓여있다고 볼때, 『하늘의 끝없는 횡포에 맞서는 북녘의소리를 생생한 이미지로전달해주는 浪동문의 詩는 우리 민족의 「목숨의 소리」라는 評。

浪동문은 33년서울産。60년 본교 국문과卒, 한국 잡지기자협회장, 삼성출판사 편집부장, 현대시인협회 이사등 역임。詩集 「四季의노래」, 「북녘바람의 귀순」등 발간。

月刊文學 25회 新人文學賞수상한 金容彪동문



金容彪(佛敎大 佛敎科·77년) 同門은 詩 「古典의 달」로 月刊文學 제25회 신인문학상(8월호)을 수상함으로써 문단에 정식으로 데뷔했다。

金동문은 이미 76년부터 忠南文人들의 同人誌인 「湖西文學」同人으로서 활약해왔으며, 在學時 숭가과의 蔡明 淸圓 두詩人등과함께 「何如」同人으로 同人誌를 펴내면서 8百여 行의 서사시 「붓다차리타」로 本社 學術賞(創作文學分野장려상)을 수상한 정력적인 詩人。

1천2백여매의 장편서사시 「붓다차리타」는 불타의 일생을 주제로 1년간의 자료 정리 끝에 발표한 것으로 그중 序詩와 成佛부분을 정리, 本社 學術賞을 수상한것인데 金동문은 필생의작업으로서 이作品을 완결짓고 쉬다고。

이번 수상작 「古典의달」은 李太白의 달을 소재로 잃었던 우리의 모습을 되새기고 젊음의 불안과 아쉬움을 그려 보려했는데, 그동안 부족했던 음악성을 강조해 보려했던 것이 주효했던모양이라고 自評。데뷔자이란 現代詩史의 한 경을 더할수 있는,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作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으나 아무래도 미흡한 것 같다고 겸양하기도。

『위대한 詩에는 위대한 종교적 체험이 필요합니다。詩人은 求道者여야합니다。作詩란, 존재의 궁극적 목표인 영원에도 달하기위한 발원이니까요。빛에의 希求, 詩란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하고 自身의 文學觀을 밝히고 金동문은 「神의 축복이 번갯불처럼 떨지는 순간」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禪을 山寺에서 보낸다。

「何如」同人들과 함께 「詩人은 가장 理想的인 人間像」이라는 일종의 선민의식을 갖고 재기(?)를 부리던 在學시절이 文學수업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며 활발한 작품발표와 同人活動을 권하기도 한다。

『물론 詩란 혼자 하는 고독한 작업이니만큼 同人활동 자체에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서로자극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중요하죠。더군다나 고독한 길을 함께 걸을 사람을 발견할수 있다면…』

내년쯤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金동문은 50년 공주産。69년에 大田高졸업, 본교 불교과에 입학(佛大首席), 현재 明星女中 校法師로 재직중。

新任 各大學院長·學處室長들

◇大學院長=黃壽永박사
▲18년 서울生▲41년 일본 東京帝國大學 경제학부卒▲72년 본교 大學院 문학박사학위취득▲서울대강사, 연대, 건대교수 역임, 國立박물관장역임▲본교문리대교수(현)본교박물관장(현)▲저서=「金石遺文」(63년)「韓國佛像硏究」(70)

◇行政大學院長=閔丙天박사
▲32년 경기生▲56년 서울대 정치과卒▲本校대학원 정치과 卒▲74년 本校대학원 정치학박사학위취득▲조선대 서울대 국방대 교수역임▲본교행정대학원및 法政大교수(現)본교 기획실장, 교무처장역임▲저서=「現代政治學」(66년)外 다수

◇經營大學院長=金鍾遠박사
▲25년 서울生▲49년 본교경제과卒▲고려대학원경제과 수료▲본교 대학원서 경제학박사학위취득▲54년~본교 經商大교수(現)經商大學長역임▲석탄공사이사 역임▲74년 본교복직▲저서=「화폐경제학」(58년)「경제대의」(67년)외다수

◇佛敎大學長=李載昌박사
▲28년 서울生▲51년 본교 경제과卒▲55년 본교 대학원 불교과卒 ▲75년 본교 철학박사학위 취득▲속대강사, 本校佛敎大교수(現)학생처장역임▲저서=「고려寺院경제硏究」등다수

◇法政大學長=韓相範박사
▲36년 서울生▲본교 法學科卒▲58년 본교 대학원 法學科卒▲75년 본교서 法學박사학위 취득▲조선대교수 본교法政大교수(現)학생처장역임▲司法·行政考試委員▲저서=「憲法」(67년)「政治權力과 市民의 自由」(72년)의 다수

◇經商大學長=張源宗박사
▲26년 경남生▲48년 본교 경제과卒▲고대대학원수료▲본교 대학원卒▲74년 본교서 경제학박사학위취득▲육사공민정보학교 강사역임▲60년~본교경상대교수(現)경상대학장역임(68~70년)▲저서=「경제학원리」(59년)외 다수

◇農林大學長=朱宗桓박사
▲29년 서울生▲52년 日本 東京大 경제과卒▲同校大學院졸업▲74년 본교서 경제학박사 학위취득▲한대강사 본교 農林大교수(62년~)▲저서=「農業經濟學硏究」(74년)「經濟學概論」(78년)

◇工科大學長=金昌湜박사
▲23년 경북生▲美 콘넬大 농대식공과卒▲64년경북대대학원 박사과정수료 박사학위취득(농학박사)▲경북대교수, 본교교수, 공대학장역임(69~71년)▲저서=「일반미생물학」(63년)「식품학개론」(70년)

◇師範大學長=김성배박사
▲17년 서울生▲47년본교국문과卒▲본교대학원수료▲73년본교서 문학박사학위취득▲서울대, 고대강사역임▲명지대교수및 부학장역임▲본교교수, 학생처장, 교양학부장, 도서관장역임▲한국 국어국문학회회장역임▲한국국어교육학회회장(현)외술회부회장(현)▲저서=「현대실용문법」(63년·어문각)「신국어교육론」(57)「한국불교가요의 연구」(73년)「한국 수수께끼사전」(73년)의 多數

◇二部部長=申國柱박사
▲25년 서울生▲45년 혜전卒▲47년 본교 사학과卒▲日本早稻田大學및 法政大대학원 졸업▲64년日本法政大서 정치학박사학위취득▲64년 본교대우교수, 교수(현)▲本校행정대원장역임。
▲저서=「한국近代政治外交史」(66년)

◇敎養學部長=金秉玉박사
▲26년 경남生▲63년 독일 산스부르그大學 교육학과卒▲同校大學院박사과정수료 철학박사학위취득(63년)한양대교수, 본교교수, 명성여고교장역임, 사대학장역임。
▲저서=「교육인간사」「현대교육심리」외 多數。

◇敎務處長=李昌培박사
▲24년 서울生▲46년 本校영문과卒▲美 미네소타大 대학원수료▲本校서 문학박사학위취득▲전남대교수역임, 本校교수, 교무처장, 사대학장, 문리과대학장, 교양학부장역임。
▲저서=「20세기 英美詩의形成 T.S.Eliot문학연구」(63년)

◇學生處長=鄭允武박사
▲32年 경남生▲서울대 정치과卒▲本校대학원 정치과卒。
▲73년 본교서 정치학박사학위취득▲동대교수(現)서울대강사, 행정대학원학감역임▲학생처장역임(75년~現)▲저서=「현대정치학」(65년)「現代政治心理學」

◇總務處長=金翰周박사
▲31年 경북生▲해인(경남)대학 법학부卒▲부산대대학원卒 ▲77년 本校서 정치학박사학위 취득▲부산대, 마산대교수 역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총무부장 역임▲本校총무처장(77년~現)▲저서=「韓國社會保障論」(78년 법문사)

◇企劃室長=裵鍾根박사
▲32年 서울生▲서울사대卒, 서울대대학원수료▲美 스펜포드大, 위스킨신大, 대학원수료▲美 스펜포드大學서 교육학박사학위취득▲서울교대, 고대·연대강사, 동대교수(現)▲저서=「교육행정」(64年。현대교육총서)

◇圖書館長=洪庭植박사
▲18년 서울生▲中央佛專卒▲74년본교서 철학박사학위취득▲京畿大교수, 同校도서관장, ▲본교교수, 교무처장, 교양학부장, 佛大學長역임。
▲저서=「불교입문」(63년)「보살의 가는 길」(73년)외 多數。

◇科學館長=金直泰박사
▲26년 경북生▲50年 日本 東京大學理科大 화학과卒▲本校 대학원 수료▲75년 본교 本校서 이학박사 학위 취득▲충남대, 명지대 교수역임▲59年 本校 공대교수 부임。

◇實驗農場長=이해풍박사
▲37年 서울生▲60年 본교 文理大卒▲68年 본교대학원졸▲73年 본교서 농학박사학위 취득▲70年~本校교수。

◇演習林管理所長=金昌浩박사
▲34年 서울生▲57年 本校 林學科卒▲59년 본교大學院수료▲75年 本校서 농학박사학위 취득▲67年~본교 농대교수▲77년 본교연습림관리소장(現)

◇外國語敎育院長=吳碩奎박사
▲14년 서울生▲41년 日本 京都大學卒▲부산대, 동아대교수 역임▲본교교수, 도서관장, 문리대학장외국어교육원장(75년~現)역임▲한국영어영문학회회장역임▲부산대영어박사학위취득。

◇正覺院長=李智冠박사
▲36년 경남生▲59년 본교卒▲64년 본교 大學院 사학과卒▲70년~본교교수。

◇大學院學監=曺永祿교수
▲34년 서울生▲59년 본교 대학원 불교과卒 ▲75년 본교 철학박사학위 취득▲속대강사, 本校佛敎大교수(現)학생처장역임▲저서=「고려寺院경제硏究」등다수

◇法政大學長=韓相範박사
▲36년 서울生▲본교 法學科卒▲58년 본교 대학원 法學科卒▲75년 본교서 法學박사학위 취득▲조선대교수 본교法政大교수(現)학생처장역임▲司法·行政考試委員▲저서=「憲法」(67년)「政治權力과 市民의 自由」(72년)의 다수

◇經商大學長=張源宗박사
▲26년 경남生▲48년 본교 경제과卒▲고대대학원수료▲본교 대학원卒▲74년 본교서 경제학박사학위취득▲육사공민정보학교 강사역임▲60년~본교경상대교수(現)경상대학장역임(68~70년)▲저서=「경제학원리」(59년)외 다수

◇農林大學長=朱宗桓박사
▲29년 서울生▲52년 日本 東京大 경제과卒▲同校大學院졸업▲74년 본교서 경제학박사 학위취득▲한대강사 본교 農林大교수(62년~)▲저서=「農業經濟學硏究」(74년)「經濟學概論」(78년)

◇工科大學長=金昌湜박사
▲23년 경북生▲美 콘넬大 농대식공과卒▲64년경북대대학원 박사과정수료 박사학위취득(농학박사)▲경북대교수, 본교교수, 공대학장역임(69~71년)▲저서=「일반미생물학」(63년)「식품학개론」(70년)

◇師範大學長=김성배박사
▲17년 서울生▲47년본교국문과卒▲본교대학원수료▲73년본교서 문학박사학위취득▲서울대, 고대강사역임▲명지대교수및 부학장역임▲본교교수, 학생처장, 교양학부장, 도서관장역임▲한국 국어국문학회회장역임▲한국국어교육학회회장(현)외술회부회장(현)
▲저서=「현대실용문법」(63년·어문각)「신국어교육론」(57)「한국불교가요의 연구」(73년)「한국 수수께끼사전」(73년)의 多數

◇二部部長=申國柱박사
▲25년 서울生▲45년 혜전卒▲47년 본교 사학과卒▲日本早稻田大學및 法政大대학원 졸업▲64년日本法政大서 정치학박사학위취득▲64년 본교대우교수, 교수(현)▲本校행정대원장역임。
▲저서=「한국近代政治外交史」(66년)

◇敎養學部長=金秉玉박사
▲26년 경남生▲63년 독일 산스부르그大學 교육학과卒▲同校大學院박사과정수료 철학박사학위취득(63년)한양대교수, 본교교수, 명성여고교장역임, 사대학장역임。
▲저서=「교육인간사」「현대교육심리」외 多數。

◇敎務處長=李昌培박사
▲24년 서울生▲46년 本校영문과卒▲美 미네소타大 대학원수료▲本校서 문학박사학위취득▲전남대교수역임, 本校교수, 교무처장, 사대학장, 문리과대학장, 교양학부장역임。
▲저서=「20세기 英美詩의形成 T.S.Eliot문학연구」(63년)

◇學生處長=鄭允武박사
▲32年 경남生▲서울대 정치과卒▲本校대학원 정치과卒。
▲73년 본교서 정치학박사학위취득▲동대교수(現)서울대강사, 행정대학원학감역임▲학생처장역임(75년~現)▲저서=「현대정치학」(65년)「現代政治心理學」

◇總務處長=金翰周박사
▲31年 경북生▲해인(경남)대학 법학부卒▲부산대대학원卒 ▲77년 本校서 정치학박사학위 취득▲부산대, 마산대교수 역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총무부장 역임▲本校총무처장(77년~現)▲저서=「韓國社會保障論」(78년 법문사)

◇企劃室長=裵鍾根박사
▲32年 서울生▲서울사대卒, 서울대대학원수료▲美 스펜포드大, 위스킨신大, 대학원수료▲美 스펜포드大學서 교육학박사학위취득▲서울교대, 고대·연대강사, 동대교수(現)▲저서=「교육행정」(64年。현대교육총서)

◇圖書館長=洪庭植박사
▲18년 서울生▲中央佛專卒▲74년본교서 철학박사학위취득▲京畿大교수, 同校도서관장, ▲본교교수, 교무처장, 교양학부장, 佛大學長역임。
▲저서=「불교입문」(63년)「보살의 가는 길」(73년)외 多數。

◇科學館長=金直泰박사
▲26년 경북生▲50年 日本 東京大學理科大 화학과卒▲本校 대학원 수료▲75년 본교 本校서 이학박사 학위 취득▲충남대, 명지대 교수역임▲59年 本校 공대교수 부임。

◇實驗農場長=이해풍박사
▲37年 서울生▲60年 본교 文理大卒▲68年 본교대학원졸▲73年 본교서 농학박사학위 취득▲70年~本校교수。

◇演習林管理所長=金昌浩박사
▲31년 서울生▲57년 本校 林學科卒▲59년 본교大學院수료▲75年 本校서 농학박사학위 취득▲67年~본교 농대교수▲77년 본교연습림관리소장(現)

◇外國語敎育院長=吳碩奎박사
▲14년 서울生▲41년 日本 京都大學卒▲부산대, 동아대교수 역임▲본교교수, 도서관장, 문리대학장외국어교육원장(75년~現)역임▲한국영어영문학회회장역임▲부산대영어박사학위취득。

◇正覺院長=李智冠박사
▲36년 경남生▲59년 본교卒▲64년 본교 大學院 사학과卒▲70년~본교교수。

◇大學院學監=曺永祿교수
▲34年 서울生▲59년 본교 대학원 불교과卒 ▲75년 본교 철학박사학위 취득▲속대강사, 本校佛敎大교수(現)학생처장역임▲저서=「고려寺院경제硏究」등다수

◇法政大學長=韓相範박사
▲36년 서울生▲본교 法學科卒▲58년 본교 대학원 法學科卒▲75년 본교서 法學박사학위 취득▲조선대교수 본교法政大교수(現)학생처장역임▲司法·行政考試委員▲저서=「憲法」(67년)「政治權力과 市民의 自由」(72년)의 다수

◇經商大學長=張源宗박사
▲26년 경남生▲48년 본교 경제과卒▲고대대학원수료▲본교 대학원卒▲74년 본교서 경제학박사학위취득▲육사공민정보학교 강사역임▲60년~본교경상대교수(現)경상대학장역임(68~70년)▲저서=「경제학원리」(59년)외 다수

◇農林大學長=朱宗桓박사
▲29년 서울生▲52년 日本 東京大 경제과卒▲同校大學院졸업▲74년 본교서 경제학박사 학위취득▲한대강사 본교 農林大교수(62년~)▲저서=「農業經濟學硏究」(74년)「經濟學概論」(78년)

◇工科大學長=金昌湜박사
▲23년 경북生▲美 콘넬大 농대식공과卒▲64년경북대대학원 박사과정수료 박사학위취득(농학박사)▲경북대교수, 본교교수, 공대학장역임(69~71년)▲저서=「일반미생물학」(63년)「식품학개론」(70년)

◇師範大學長=김성배박사
▲17년 서울生▲47년본교국문과卒▲본교대학원수료▲73년본교서 문학박사학위취득▲서울대, 고대강사역임▲명지대교수및 부학장역임▲본교교수, 학생처장, 교양학부장, 도서관장역임▲한국 국어국문학회회장역임▲한국국어교육학회회장(현)외술회부회장(현)
▲저서=「현대실용문법」(63년·어문각)「신국어교육론」(57)「한국불교가요의 연구」(73년)「한국 수수께끼사전」(73년)의 多數

◇二部部長=申國柱박사
▲25년 서울生▲45년 혜전卒▲47년 본교 사학과卒▲日本早稻田大學및 法政大대학원 졸업▲64년日本法政大서 정치학박사학위취득▲64년 본교대우교수, 교수(현)▲本校행정대원장역임。
▲저서=「한국近代政治外交史」(66년)

◇敎養學部長=金秉玉박사
▲26년 경남生▲63년 독일 산스부르그大學 교육학과卒▲同校大學院박사과정수료 철학박사학위취득(63년)한양대교수, 본교교수, 명성여고교장역임, 사대학장역임。
▲저서=「교육인간사」「현대교육심리」외 多數。

◇敎務處長=李昌培박사
▲24년 서울生▲46년 本校영문과卒▲美 미네소타大 대학원수료▲本校서 문학박사학위취득▲전남대교수역임, 本校교수, 교무처장, 사대학장, 문리과대학장, 교양학부장역임。
▲저서=「20세기 英美詩의形成 T.S.Eliot문학연구」(63년)

◇學生處長=鄭允武박사
▲32年 경남生▲서울대 정치과卒▲本校대학원 정치과卒。
▲73년 본교서 정치학박사학위취득▲동대교수(現)서울대강사, 행정대학원학감역임▲학생처장역임(75년~現)▲저서=「현대정치학」(65년)「現代政治心理學」

◇總務處長=金翰周박사
▲31年 경북生▲해인(경남)대학 법학부卒▲부산대대학원卒 ▲77년 本校서 정치학박사학위 취득▲부산대, 마산대교수 역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총무부장 역임▲本校총무처장(77년~現)▲저서=「韓國社會保障論」(78년 법문사)

◇企劃室長=裵鍾根박사
▲32年 서울生▲서울사대卒, 서울대대학원수료▲美 스펜포드大, 위스킨신大, 대학원수료▲美 스펜포드大學서 교육학박사학위취득▲서울교대, 고대·연대강사, 동대교수(現)▲저서=「교육행정」(64年。현대교육총서)

◇圖書館長=洪庭植박사
▲18년 서울生▲中央佛專卒▲74년본교서 철학박사학위취득▲京畿大교수, 同校도서관장, ▲본교교수, 교무처장, 교양학부장, 佛大學長역임。
▲저서=「불교입문」(63년)「보살의 가는 길」(73년)외 多數。

◇科學館長=金直泰박사
▲26년 경북生▲50年 日本 東京大學理科大 화학과卒▲本校 대학원 수료▲75년 본교 本校서 이학박사 학위 취득▲충남대, 명지대 교수역임▲59年 本校 공대교수 부임。

◇實驗農場長=이해풍박사
▲37年 서울生▲60年 본교 文理大卒▲68年 본교대학원졸▲73年 본교서 농학박사학위 취득▲70年~本校교수。

◇演習林管理所長=金昌浩박사
▲34年 서울生▲57年 本校 林學科卒▲59년 본교大學院수료▲75年 本校서 농학박사학위 취득▲67年~본교 농대교수▲77년 본교연습림관리소장(現)

◇外國語敎育院長=吳碩奎박사
▲14년 서울生▲41년 日本 京都大學卒▲부산대, 동아대교수 역임▲본교교수, 도서관장, 문리대학장외국어교육원장(75년~現)역임▲한국영어영문학회회장역임▲부산대영어박사학위취득。

◇正覺院長=李智冠박사
▲36년 경남生▲59년 본교卒▲64년 본교 大學院 사학과卒▲70년~본교교수。

◇大學院學監=曺永祿교수
▲34年 서울生▲59년 본교 대학원 불교과卒 ▲75년 본교 철학박사학위 취득▲속대강사, 本校佛敎大교수(現)학생처장역임▲저서=「고려寺院경제硏究」등다수

◇法政大學長=韓相範박사
▲36년 서울生▲본교 法學科卒▲58년 본교 대학원 法學科卒▲75년 본교서 法學박사학위 취득▲조선대교수 본교法政大교수(現)학생처장역임▲司法·行政考試委員▲저서=「憲法」(67년)「政治權力과 市民의 自由」(72년)의 다수

◇經商大學長=張源宗박사
▲26년 경남生▲48년 본교 경제과卒▲고대대학원수료▲본교 대학원卒▲74년 본교서 경제학박사학위취득▲육사공민정보학교 강사역임▲60년~본교경상대교수(現)경상대학장역임(68~70년)▲저서=「경제학원리」(59년)외 다수

◇農林大學長=朱宗桓박사
▲29년 서울生▲52년 日本 東京大 경제과卒▲同校大學院졸업▲74년 본교서 경제학박사 학위취득▲한대강사 본교 農林大교수(62년~)▲저서=「農業經濟學硏究」(74년)「經濟學概論」(78년)

◇工科大學長=金昌湜박사
▲23년 경북生▲美 콘넬大 농대식공과卒▲64년경북대대학원 박사과정수료 박사학위취득(농학박사)▲경북대교수, 본교교수, 공대학장역임(69~71년)▲저서=「일반미생물학」(63년)「식품학개론」(70년)

◇師範大學長=김성배박사
▲17년 서울生▲47년본교국문과卒▲본교대학원수료▲73년본교서 문학박사학위취득▲서울대, 고대강사역임▲명지대교수및 부학장역임▲본교교수, 학생처장, 교양학부장, 도서관장역임▲한국 국어국문학회회장역임▲한국국어교육학회회장(현)외술회부회장(현)
▲저서=「현대실용문법」(63년·어문각)「신국어교육론」(57)「한국불교가요의 연구」(73년)「한국 수수께끼사전」(73년)의 多數

◇二部部長=申國柱박사
▲25년 서울生▲45년 혜전卒▲47년 본교 사학과卒▲日本早稻田大學및 法政大대학원 졸업▲64년日本法政大서 정치학박사학위취득▲64년 본교대우교수, 교수(현)▲本校행정대원장역임。
▲저서=「한국近代政治外交史」(66년)

◇敎養學部長=金秉玉박사
▲26년 경남生▲63년 독일 산스부르그大學 교육학과卒▲同校大學院박사과정수료 철학박사학위취득(63년)한양대교수, 본교교수, 명성여고교장역임, 사대학장역임。
▲저서=「교육인간사」「현대교육심리」외 多數。

◇敎務處長=李昌培박사
▲24년 서울生▲46년 本校영문과卒▲美 미네소타大 대학원수료▲本校서 문학박사학위취득▲전남대교수역임, 本校교수, 교무처장, 사대학장, 문리과대학장, 교양학부장역임。
▲저서=「20세기 英美詩의形成 T.S.Eliot문학연구」(63년)

◇學生處長=鄭允武박사
▲32年 경남生▲서울대 정치과卒▲本校대학원 정치과卒。
▲73년 본교서 정치학박사학위취득▲동대교수(現)서울대강사, 행정대학원학감역임▲학생처장역임(75년~現)▲저서=「현대정치학」(65년)「現代政治心理學」

◇總務處長=金翰周박사
▲31年 경북生▲해인(경남)대학 법학부卒▲부산대대학원卒 ▲77년 本校서 정치학박사학위 취득▲부산대, 마산대교수 역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총무부장 역임▲本校총무처장(77년~現)▲저서=「韓國社會保障論」(78년 법문사)

◇企劃室長=裵鍾根박사
▲32年 서울生▲서울사대卒, 서울대대학원수료▲美 스펜포드大, 위스킨신大, 대학원수료▲美 스펜포드大學서 교육학박사학위취득▲서울교대, 고대·연대강사, 동대교수(現)▲저서=「교육행정」(64年。현대교육총서)

◇圖書館長=洪庭植박사
▲18년 서울生▲中央佛專卒▲74년본교서 철학박사학위취득▲京畿大교수, 同校도서관장, ▲본교교수, 교무처장, 교양학부장, 佛大學長역임。
▲저서=「불교입문」(63년)「보살의 가는 길」(73년)외 多數。

◇科學館長=金直泰박사
▲26년 경북生▲50年 日本 東京大學理科大 화학과卒▲本校 대학원 수료▲75년 본교 本校서 이학박사 학위 취득▲충남대, 명지대 교수역임▲59年 本校 공대교수 부임。

◇實驗農場長=이해풍박사
▲37年 서울生▲60年 본교 文理大卒▲68年 본교대학원졸▲73年 본교서 농학박사학위 취득▲70年~本校교수。

◇演習林管理所長=金昌浩박사
▲34年 서울生▲57年 本校 林學科卒▲59년 본교大學院수료▲75年 本校서 농학박사학위 취득▲67年~본교 농대교수▲77년 본교연습림관리소장(現)

◇外國語敎育院長=吳碩奎박사
▲14년 서울生▲41년 日本 京都大學卒▲부산대, 동아대교수 역임▲본교교수, 도서관장, 문리대학장외국어교육원장(75년~現)역임▲한국영어영문학회회장역임▲부산대영어박사학위취득。

◇正覺院長=李智冠박사
▲36년 경남生▲59년 본교卒▲64년 본교 大學院 사학과卒▲70년~본교교수。

◇大學院學監=曺永祿교수
▲34年 서울生▲59년 본교 대학원 불교과卒 ▲75년 본교 철학박사학위 취득▲속대강사, 本校佛敎大교수(現)학생처장역임▲저서=「고려寺院경제硏究」등다수

◇法政大學長=韓相範박사
▲36년 서울生▲본교 法學科卒▲58년 본교 대학원 法學科卒▲75년 본교서 法學박사학위 취득▲조선대교수 본교法政大교수(現)학생처장역임▲司法·行政考試委員▲저서=「憲法」(67년)「政治權力과 市民의 自由」(72년)의 다수

◇經商大學長=張源宗박사
▲26년 경남生▲48년 본교 경제과卒▲고대대학원수료▲본교 대학원卒▲74년 본교서 경제학박사학위취득▲육사공민정보학교 강사역임▲60년~본교경상대교수(現)경상대학장역임(68~70년)▲저서=「경제학원리」(59년)외 다수

◇農林大學長=朱宗桓박사
▲29년 서울生▲52년 日本 東京大 경제과卒▲同校大學院졸업▲74년 본교서 경제학박사 학위취득▲한대강사 본교 農林大교수(62년~)▲저서=「農業經濟學硏究」(74년)「經濟學概論」(78년)

◇工科大學長=金昌湜박사
▲23년 경북生▲美 콘넬大 농대식공과卒▲64년경북대대학원 박사과정수료 박사학위취득(농학박사)▲경북대교수, 본교교수, 공대학장역임(69~71년)▲저서=「일반미생물학」(63년)「식품학개론」(70년)

◇師範大學長=김성배박사
▲17년 서울生▲47년본교국문과卒▲본교대학원수료▲73년본교서 문학박사학위취득▲서울대, 고대강사역임▲명지대교수및 부학장역임▲본교교수, 학생처장, 교양학부장, 도서관장역임▲한국 국어국문학회회장역임▲한국국어교육학회회장(현)외술회부회장(현)
▲저서=「현대실용문법」(63년·어문각)「신국어교육론」(57)「한국불교가요의 연구」(73년)「한국 수수께끼사전」(73년)의 多數

◇二部部長=申國柱박사
▲25년 서울生▲45년 혜전卒▲47년 본교 사학과卒▲日本早稻田大學및 法政大대학원 졸업▲64년日本法政大서 정치학박사학위취득▲64년 본교대우교수, 교수(현)▲本校행정대원장역임。
▲저서=「한국近代政治外交史」(66년)

◇敎養學部長=金秉玉박사
▲26년 경남生▲63년 독일 산스부르그大學 교육학과卒▲同校大學院박사과정수료 철학박사학위취득(63년)한양대교수, 본교교수, 명성여고교장역임, 사대학장역임。
▲저서=「교육인간사」「현대교육심리」외 多數。

◇敎務處長=李昌培박사
▲24년 서울生▲46년 本校영문과卒▲美 미네소타大 대학원수료▲本校서 문학박사학위취득▲전남대교수역임, 本校교수, 교무처장, 사대학장, 문리과대학장, 교양학부장역임。
▲저서=「20세기 英美詩의形成 T.S.Eliot문학연구」(63년)

◇學生處長=鄭允武박사
▲32年 경남生▲서울대 정치과卒▲本校대학원 정치과卒。
▲73년 본교서 정치학박사학위취득▲동대교수(現)서울대강사, 행정대학원학감역임▲학생처장역

豫試 優秀者 특별 銓衡

——79年度 入試要綱 大幅변경

필수과목 人文系 社會系 國·英·數 ① 自然系 國·英語

豫試成績百%加算

學處長會議

1979학년도 新入生 銓衡要綱이 28일 學處長會議를 통과, 確定되었다. 이 要綱에 따르면 考査期間은 79년2월8일부터 後期이며, 또한 시험 科目은 人文社會系의 경우 작년에 필수과목으로 自然科學系의 경우 數學(Ⅱ)가 數學(Ⅰ)로 바뀌는등 대폭 변경되었다. 또한 예비고사 시험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全學科에 걸쳐 정원의 20%내에서 특별 전형을 하기로 했다. 예비고사 성적은 78학년도와 같이 총점의 53%(100%가산)를 반영한다.

고사과목은 인문사회계열은 國語·英語·두科目이며 선택은 數學(Ⅰ)과 國史(探)이다. 한편 자연과학계는 國語·英語·數學(Ⅰ)(이상 필수)로 확정되었으며, 藝體能系(미술과·演映科·體育科) 의경우는 國語·英語·實技로 금년과 同一하다.

필기시험의 배점은 각과목당 1백점만점이며 예비고사성적 반영은 금년도와 같이 1백%가산(3백40점 중심으로 주관식70%, 객관식30%의 비율로 출제된다. 다음 예비고사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을 실시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전학과에 20%이내에서 결쳐 예비고사성적 우수자로서 ②전형방법은 예시성적 면접으로 査定.

經大院, 産業視察

龜尾工團등지서

경영대학원 산업시찰이 지난20일(水)부터 22일(金)까지 구미공단 및 포항종합제철, 울산공업단지 등지에서 있었다.

산업시찰은 제11기 학생회(회장=李殷祚·生産管理)에서, 40명이 참가하여 각 산업의 시설및 영실태에 대한 견학과 실습, 브리핑을 받았으며, 시찰후 각 산업체에 감사패서 이번 산업시찰은 제11기 放送要員敎育에 있었다.

放送要員2名 MBC서實務敎育

MBC주최 제2회 放送要員敎育에 대한 교육·방송국장=본교 大學 法3)·국장=金弘根·방송국장(실무국장=본교 法3)·金山(제작부·전기2)·군, 李奏子(아나부·전기2)·양동 2명이 참가하여 방송업무 교육을 받고 전반에 걸친 교육을 받았다.

同窓會 理事會 개최

事業計劃 및 豫算審議

78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29차 同窓會(회장=崔載九·國會議員) 정기이사회가 지난 4일 오후7시 본관교수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신임 鄭在覺 總長, 崔載九총학회장등 2백여명의 理事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는 金長吉 總長축사,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자리에서 崔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동문이 母校 발전을 위하여 적극참여하여 현재선상에 있는 것이라보아도 좋을듯』 또한 재임기간중 『불도저總長』이란 애칭을받으며 과감한 사업을 추진해온 李총장은 이날 퇴임하는 무대에서 나면서 화려한 무대매너(?)로 滿場의 박수를 한몸에…반면 鄭총장은 후하고 차분한 태도로서 종 『學者다운 면모』를 과시하면서 李·鄭두總長의 개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校生의 입장표 할인이 대폭 낮아졌다고.

○…지난 1일 新·舊總長 離·就任式場인 중강당에는 학생들이 계속 밀려들어 늦게 온 학생들은 선 채로 式을 지켜보는 선 성황을 이루는등 화려한 만발.

學校行事에 학생의 참여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성황은 李총장이 평소 학생과 대학의 총장직은 오랜因緣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마디.

이에대해 수영장의 한 관계자는 『현행 요금(大人5백원, 小人4백원)으로도 시설 유지가 곤란하다 실정이어서 적정할인이 못되고 있다』며 사이 그렇다면 회원제도 갖춘 것을 구상하여 東國人에게 특혜를 베풀어 개학후에는 때(?)엇은 「코끼리」가 되게 함이 어떠실지.

○…報恩 읍대에 메아리친 東國人의 봉사대원들은 住民들의 따스한호응을 바탕으로 무덕위를 잊고 봉사활동에 참가. 그러나 뒤안에 숨은 노력과 고충도 가지가지. 한 대원은 온 몸을 물것들로 한 밤점으로 치장하고 있어 알아본 즉, 모기, 빈대, 벽록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영광의 상처(?)라고, 한마디. 또한 주민들이 권하는 술과 담배를 사양하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식원한 개울을 옆에 두고 봉사활동의 모범을 보이기위해 목욕도 임정시간에만 하는 이열치열의 克己로 한편 산업시찰일정을 마친후 참배하기도 했다. 직지사 모두 들을 放送要員敎育 MBC서實務敎育 放送要員敎育 MBC주최 제2회 放送要員敎育에 대한 교육·방송국장=본교 大學 法3)·국장=金弘根·방송국장(실무국장=본교 法3)·金山(제작부·전기2)·군, 李奏子(아나부·전기2)·양동 2명이 참가하여 방송업무 교육을 받고 전반에 걸친 교육을 받았다.

經大院, 産業視察

龜尾工團등지서

경영대학원 산업시찰이 지난20일(水)부터 22일(金)까지 구미공단 및 포항종합제철, 울산공업단지 등지에서 있었다.

산업시찰은 제11기 학생회(회장=李殷祚·生産管理)에서, 40명이 참가하여 각 산업의 시설및 영실태에 대한 견학과 실습, 브리핑을 받았으며, 시찰후 각 산업체에 감사패서 이번 산업시찰은 제11기 放送要員敎育에 있었다.

放送要員2名 MBC서實務敎育

MBC주최 제2회 放送要員敎育에 대한 교육·방송국장=본교 大學 法3)·국장=金弘根·방송국장(실무국장=본교 法3)·金山(제작부·전기2)·군, 李奏子(아나부·전기2)·양동 2명이 참가하여 방송업무 교육을 받고 전반에 걸친 교육을 받았다.

同窓會 理事會 개최

事業計劃 및 豫算審議

78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29차 同窓會(회장=崔載九·國會議員) 정기이사회가 지난 4일 오후7시 본관교수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신임 鄭在覺 總長, 崔載九총학회장등 2백여명의 理事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는 金長吉 總長축사,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자리에서 崔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동문이母校 발전을 위하여 적극참여하여 현재선상에 있는 것이라보아도 좋을듯』 또한 재임기간중 『불도저總長』이란 애칭을받으며 과감한 사업을 추진해온 李총장은 이날 퇴임하는 무대에서 나면서 화려한 무대매너(?)로 滿場의 박수를 한몸에…반면 鄭총장은 후하고 차분한 태도로서 종 『學者다운 면모』를 과시하면서 李·鄭두總長의 개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校生의 입장표 할인이대폭 낮아졌다고.

○…報恩 읍대에 메아리친 東國人의 봉사대원들은 住民들의 따스한호응을 바탕으로 무덕위를 잊고 봉사활동에 참가. 그러나 뒤안에 숨은 노력과 고충도 가지가지. 한 대원은 온 몸을 물것들로 한 밤점으로 치장하고 있어 알아본 즉, 모기, 빈대, 벽록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영광의 상처(?)라고, 한마디. 또한 주민들이 권하는 술과 담배를 사양하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식원한 개울을 옆에 두고 봉사활동의 모범을 보이기위해 목욕도 임정시간에만 하는 이열치열의 克己로

總長職은 오랜 因緣(?) 「特惠(?)」는 안돼더라도

○…東國學院 직영 「奬忠수영장」이 지난 5일 개장하여 이용자로 붐비은 것을 구상하여 東國

◇지난 26일 大韓佛敎振興院에서 鄭總長에게 佛典刊行 지원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各種修練大會開催

敎職員·學生다수 참가

洞探部, 日本遠征隊 出發

敎職員 修練大會

敎職員 修練大會

敎職員 修練大會

職業少年學校의 現況과 문제점

李永斗

I. 序

職業少年學校란 정규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는 대부분 불우한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空間이다。이들 직업학교는 일반들지가나 사회사업가, 또는 社會敎育분들에의하여 敎育, 운영되며, 대개는 각 敎育廳에 의해 行政的 財政的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것이 보통이다。이 직업학교와 비슷한 비정규기관으로서는 야간학교, 福祉學校, 새마을학교, 청소년교육관, 직업훈련소, 청소년직업학교 등이 있는데 이들 학교는 등사무소, 또는 정규학교의 빈교실(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市場內의 시설들, 企業體의 사무실, 예식장등의 시설을 수업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II. 問題의 重要性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낮에는 직장에서(혹은 가사를 돌보면), 밤에는 이러한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낮의 접촉에 불과는 학생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다。

그들은 고학은 물론, 가족 부양의 책임까지 맡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어떤 경우는 가정이 결손되었거나, 가족구성원간의 애정결핍이라는 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흔하다。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이 社會의 소의집단의 임원으로 귀속시키며, 그렇기때문에 자칫 탈선행위를 범하기 쉬운 환경에 있다。또한 그들 학생중 일부는 街頭職業少年생활이나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욕구불만은 대단하다。불우한 자신의 환경에 염매여 學業에 몰두할 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감한 향학열과 욕구수준은 오히려 갈등과 좌절, 그리고 소외의식이란 그들만의 心理的특징을 형성케한다。

III. 현황

1974년도의 한 통계에 의하면, 국민학교졸업자 92만 9천5백22명중 중학교진학을 포기한 수는 24만2천6백71명으로서 26%나 된다。이중 就業者 8만9천6백45명을 제외한 15만3천46명은 실업중에 있는것으로 나타나 약17%의 國卒青少年이 사회 및 가정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中學校의 중퇴자 및 고등학교의 중퇴자 수가 포함된다면 훨씬 더많은 수가 아무런 기술도 갖지못한채 사회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것은 74년도의 통계이므로 국가의경제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들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첫째문제점은 휴강이 많다는 점이다。휴강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은 강사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다。둘째는 강사가 빈번하게 바뀐다는 점이다。처음에는 교과과정에 대한 체계도 못세우고 짤짤 매다가에 느낄도 교습에 대한 자신도 붙고, 학생들에 대해 정도를 게 될때는 이들 강사는 벌써 학교의 最高學年이 되어 제법전과 청소년단의 노력으로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 예상된다。

이런 실정에서 1974년 全國의 未進學청소년과 職業청소년들의 非行防止策으로 1백45개의 직업소년학교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이 중 학교는 전국에 98개교에 학생수 6천6백43명이며, 강사진은 大學生 3백12명, 齊祭官 1백14명, 교사 2백63명, 경찰관을 제외한 공무원 11명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74년 이후 庶政刷新과 부조리제거라는 새마을운동이 이유가 되어, 당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직업학교는 警察官들에서 善導 및 일반복지기에 의해 되고, 경찰관서에서는 단체가 뿌린진 해주고 고있다。강사진도 더부분 대학 재학생으로 면모했으며, 강사진과 기관의 노력으로 많은 중가를 했으나 아직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①강사진이 더부분 학생인 이상, 배우는 학생으로서의강사는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따른다。그들이 더부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들의 생활과 호흡을 함께 하려고했던 기대는 마음뿐이지 실제로는불가능한 경우가 대단히많다。그러나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꼬박 자리를 지켜야하는 교무에도 불구하고 各學年담임과 면면의 열성강사들은 자신의 모든것을 제쳐놓고 졸음의 정열을 학생들에게 쏟고있다。사실 매일 저녁 동행금지 싸이렌소리를 들으며, 가족들의 돌이해와 마주 대할것을 생각하면서 귀가한다는 것은 곤욕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이런 생활 속에서 제발전과 청소년단의 노력으로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 예상된다。

이런 실정에서 1974년 全國의 未進學청소년과 職業청소년들의 非行防止策으로 1백45개의 직업소년학교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이 중 학교는 전국에 98개교에 학생수 6천6백43명이며, 강사진은 大學生 3백12명, 齊祭官 1백14명, 교사 2백63명, 경찰관을 제외한 공무원 11명, 청소년지도자 56명, 기타 9명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74년 이후 庶政刷新과 부조리제거라는 새마을운동이 이유가 되어, 당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직업학교는 警察官들에서 善導 및 일반복지기에 의해 되고, 경찰관서에서는 단체가 뿌린진 해주고 고있다。강사진도 더부분 대학 재학생으로 면모했으며, 강사진과 기관의 노력으로 많은 중가를 했으나 아직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②독지가의 財政的 도움과 警察署들을 통한 기부금으로운영되므로 학생들은 그들의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닌 정신적 도움이다。정신적이거나 임기응변적인 도움, 즉 청소년의 달이라거나 年末年始라고 해서 이들을 향사의 「도구」로쓰는 여지기를 강요하는 도움은 그 것은 소홀했던 적, 또한 없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전 東岳會가 구체적으로 결정한것은 작년 1회 조각전을 열면서부터。이로써 東岳會는 서 影壁部門, 東·西洋畫部門등 3분야로 나누어 시회를 가지기로한 것이다。

대체로 具象계열은 傳統的기법을 사용하면서도 抽象계열은 체험을 통해 작품의 원숙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家보서의 발표을에 서광作나뉘 을 비추기도。

本校 美術科가 졸업생 그동안 출한지 겨우 4回, 佛敎大學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敎美術部門에만 시피한 것은 역점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1個 科大學이 있는 他大學 술과에 비해 서양화部門이 單 특한 개성을 보이는 터치로 유명한 「바인」 「바가지있는 정물」 「창구」 「누드」 도 이에 속한다。

밝고 강렬한 色調, 밝은 화면을 나타낸 명회同門展에 사물을 대담하게 처리했다。이와 같은 반추상계열로는 박철곤의 「78-PI」 등이있고 전통적 추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반면 손숙호양은 구상에서 색감과 배합한 구도가 「일색곱사람」 「여인들」 등 2작품에서 소화해내고 있다。

기계의 장점의 두드러지지게 용해되는 것은 현대추상화의 조미해양은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내용화 시키는 것이 현대추상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있는 착이퍼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교 미술학과 졸업생들의 西洋畫作品 創立展인 門展이 안국동 미술회관 第一展示室에서 성황리에 열려 書壇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된 작품은 羅宗星 同門(3回)의 「흔적77—黑」 등 具象·非具象 합해 모두 24점(選作제외)으로 작품크기는 40號에서 1百號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주로 3·4回(77·78년주) 졸업생 10명으로 구성되어 전시회를연 이모임의 정식명칭은 東岳會門展(회장=羅宗星·3回)。

이미 2회의 작품전을 가진바있는 東岳會조각전에 비해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전시회라고 볼수있다。

작품 또한 거의 수준의 작품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때문이었다고 본다。

이에 吳京煥교수(美術科)는 『卒業美展까지만해도 미숙한 감이 없잖았으나, 역시 사회에 나가서 소홀했던 적, 또한 없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전 東岳會가 구체적으로 결정한것은 작년 1회 조각전을 열면서부터。이로써 東岳會는 影壁部門, 東·西洋畫部門등 3분야로 나누어 시회를 가지기로한 것이다。

대체로 具象계열은 傳統的기법을 사용하면서도 抽象계열은 체험을 통해 작품의 원숙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家보서의 발표을에 서광作나뉘 을 비추기도。

本校 美術科가 졸업생 그동안 출한지 겨우 4回, 佛敎大學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敎美術部門에만 시피한 것은 역점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1個 科大學이 있는 他大學 술과에 비해 서양화部門이 單 특한 개성을 보이는 터치로 유명한 「바인」 「바가지있는 정물」 「창구」 「누드」 도 이에 속한다。

밝고 강렬한 色調, 밝은 화면을 나타낸 명회同門展에 사물을 대담하게 처리했다。이와 같은 반추상계열로는 박철곤의 「78-PI」 등이있고 전통적 추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반면 손숙호양은 구상에서 색감과 배합한 구도가 「일색곱사람」 「여인들」 등 2작품에서 소화해내고 있다。

기계의 장점의 두드러지지게 용해되는 것은 현대추상화의 조미해양은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내용화 시키는 것이 현대추상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있는 착이퍼

<사진=同門·詩人>

「門展時代」門열어

「흔적77—黑」등 24점 전시

西洋畫전공 同門展

『바람에 날리는 우리』

—退任記者 辯

李元燮

◇新聞社를 위해

언젠가 일기장에 진한 감청색의 칙칙한 신문사 풍경을 그려두었다。언제고 나는 그 풍경화를꺼내어 소중스레 닦아내곤 두어모금의 담배연기를쏟아 풍경이 하나씩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곤 하였다。

풍경은 천천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래로 가라앉다가 천천히 다시 솟아올랐다。완전히 제모습을 드러냈을때 그것은 금빛 깃털이 되어 내 눈을 멀게하고는 어디든 가볍게 날아다녔다。방안이건 거리에서건。

난 노래를 불렀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취한척하며 거리를 쏘다니다 집으로 돌아가곤했다。

그건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동이기도 했다。그러나 자책감에 휩싸일때면 난 그들의 이름을하나하나 불러댔고 친구들은 어느틈에 내 주위에 와 있었다。

<녀석은 지 애인을 항상 못살게 구는 버릇이 있었다。녀석이 전화에대고 심통을 부린다거나 수화기를 함부로 내려 놓을 때는 팬히 짜증스럽기도 했다。

「일마 짤못건드리면 女子란 특사가 되는법이야」>

<항상 열불을 올리는듯하던 그자식 마침내 다섯여인의 줄다리기에 앉았지만 그래도 매일 타령하는 녀석。「吾鍋야 진×하물 푹 만나거라」>

◇껌질을 위하여

그래도 난 몬든한 소년이었다。싱싱한 물고기처럼 活字들은 은빛 비늘을번쩍이며 마구 뛰어놀고있었다。어미 활자 새끼활자, 신문은 온통 생명의 날카로웠다는 사실을 아는가。우리는 곧장 모만(?)을 움무곤 했지만 그것은 곧 넘어가기도 전에 목으로 입에서 넘어 아내려 버렸다。그러나신문사들 바라볼 적마다하나의 모만은 애중의 우리낮은 그림자가 되어의 우리낮의 목젖을 타고 마구흡렸다。그럴때면 우리 곧잘 社歌를 불렀다。서로 서로 확인하면서 너는 지독한 연애에 빠져있다고 그 사랑속에서 너는 바람에 날려 잡지사에게로 잡겨갔것지 이라고 그렇지만 친구여 우리는 낡은 꽃씨로만 다시 꽃잎으로 필수 있을 것인가。

두세칸씩 담밖에 뛰어오르던 계단, 지하에서도 가장 후미진 암실(그래도 암실은 우리의 모든 비밀을 가만히 덮어주었다), 전화벨소리, 바쁘게 뛰어가는 발자욱소리, 기타소리, 편집회의의 그 무서운(?) 정적, 주간님과 총무님의 숨바꼭질, 그래도 난 칙칙한 新聞社냄새가 좋았다。손때묻은책상, 그 유물(?)이 풍기는 선배와 우리들의애환의 그림자가 좋았다。

◇친구들에게

우리 그래도 여우보다는 토끼가 되길원했다。우리 가끔 백원짜리 백동전의 흰빛도는 우의를 다짐했고, 그 때문에 난 말이 없었는지 모른다。말을 하지않아도 친구들은 눈짓을 보냈고 그게 내몸에 번질때는 참 즐겁고 고마왔다。그때마다 난 노래를 불렀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취한척하며 거리를 쏘다니다 집으로 돌아가곤했다。

그건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동이기도 했다。그러나 자책감에 휩싸일때면 난 그들의 이름을하나하나 불러댔고 친구들은 어느틈에 내 주위에 와 있었다。

<녀석은 지 애인을 항상 못살게 구는 버릇이 있었다。녀석이 전화에대고 심통을 부린다거나 수화기를 함부로 내려 놓을 때는 팬히 짜증스럽기도 했다。

「일마 짤못건드리면 女子란 특사가 되는법이야」>

<항상 열불을 올리는듯하던 그자식 마침내 다섯여인의 줄다리기에 앉았지만 그래도 매일 타령하는 녀석。「吾鍋야 진×하물 푹 만나거라」>

◇껌질을 위하여

그래도 난 몬든한 소년이었다。싱싱한 물고기처럼 活字들은 은빛 비늘을번쩍이며 마구 뛰어놀고있었다。어미 활자 새끼활자, 신문은 온통 생명의 날카로웠다는 사실을 아는가。우리는 곧장 모만(?)을 움무곤 했지만 그것은 곧 넘어가기도 전에 목으로 입에서 넘어 아내려 버렸다。그러나신문사들 바라볼 적마다하나의 모만은 애중의 우리낮은 그림자가 되어의 우리낮의 목젖을 타고 마구흡렸다。그럴때면 우리 곧잘 社歌를 불렀다。서로 서로 확인하면서 너는 지독한 연애에 빠져있다고 그 사랑속에서 너는 바람에 날려 잡지사에게로 잡겨갔것지 이라고 그렇지만 친구여 우리는 낡은 꽃씨로만 다시 꽃잎으로 필수 있을 것인가。

<前特輯部長>

"活字들은 은빛 비늘을 반짝거리며 살아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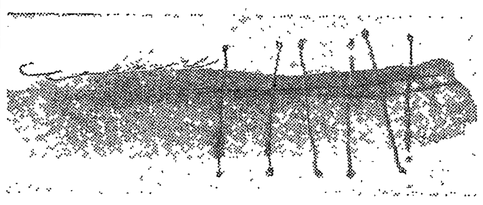
<꽁 뜨>

沙漠記

黃甲周

캘리포니아州를 사랑한다,
애리조나州 네바다州 뉴멕시코, 텍사스州도
沙漠이 열린 어느 州의 하늘 땅도 사랑하리라,

태어나서 그리움은 다 이루나니
어린시절 먼 하늘 끝 그리움은 이 沙漠에
흘러 와 더는 그리움이 없도다,



이슬 경험은 沙漠뿐이다,
아 나의 존재를 더는 확인하지 않는다,
瞬泥도 그대없이 있지 않는 하늘 땅을
나를 잃어서 비로소 사랑하리라,

캘리포니아州를 살다가
애리조나州 네바다州 뉴멕시코 텍사스州
沙漠이 이은 어느 州를 거치다가
나의 그리움은 그대 없이도 광명하리라,

<在獄 同門·詩人>

어두운 총계위

강해라

<꽁 뜨>

大學生 문예작품 9월末까지 모집

<文化短信>

韓國文學社는 제2회 대학생문예작품을 오는 9월말(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단편소설(원고지70枚내외) 수필(원고지15매내외) 시조 포함 3편이상) 詩(원고지 10枚내외)이며, 응모자격은 대학, 대학원 한한다。전문학교 재학생에 제출적은 社 편집부。

李聖子 귀국전

유화등 1백50점 전시

在佛서양화가 李聖子씨가 지난 19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귀국전을 열고 30년을 청산하는 금번 귀국전은 유화 뿐아니라, 판화, 입체작품등 1백5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전시는 8월초순까지。

외국인가요경연 대한공론사주최

대한공론사는 오는 9월 5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별관에서 외국인의 우리나라 음악부용 가요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여 국악부문의 기악 성악 무용및 가요부문의 독창 중창 등이 있다。

참가희망자는 8월26일까지 同社사업부 (☎61611교환23)로 신청하면된다。

럭키그룹의 18개 회사마다 아침 인사는 퍽 다양합니다。

Good morning, Guten Morgen, صباح الخير,
Bon jour, Buon giorno, Bom dia, Buenos días
早安, おはようございます。

그 밖의 말도 있읍니다. 까닭이야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물건 많이 팔아야 하니까요.
물론,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만,
요사이는 외국인들도 우리 말 인사를 하는 분이 차차
늘어나서 마음 든든합니다.

럭키그룹
会長 具滋暻

株式会社럭키 (화학원료, 프라스틱제품, 유지제품, 식품첨가물)
半島商事株式会社 (종합무역상사)
株式会社金星社 (가정전기제품 및 전자제품)
金星電線株式会社 (전력, 통신용전선 및 케이블)
金星通信株式会社 (교환기 및 유선통신기기)
韓国콘티넨탈카아본(株) (타이어등 각종 고무제품용 카아본 블랙)
럭키開発株式会社 (건설업)
金星電気株式会社 (반송기기 및 무선통신기기)
喜星産業株式会社 (광고 대행업)
国際証券株式会社 (유가증권의매매및위탁매매, 유가증권의중개또는대리업)
金星計電株式会社 (산업용 전기기기 및 계측기기)
金星精密工業株式会社 (정밀전자기기의 생산, 재생, 정비)
럭키海外建設株式会社 (해외건설업, 토목, 건축, 전기, 설비)
湖南精油株式会社 (정유 및 석유제품)
韓国鉱業製錬株式会社 (금, 은, 동, 연, 제련)
汎韓海上火災保険(株) (각종 보험업)
株式会社国際新聞
釜山文化TV放送(株)
財団法人蓮庵文化財団 (장학 및 육영사업)
学校法人蓮庵学園 (연암축산전문학교)